

# 太極兩儀(陰·陽)와 그 合德에 關한 考察

- 21세기의 새로운 指導理念으로서 -

林 泳 暢\*

## 目 次

### 머 리 말

#### I. 태극의 양의(兩儀) - 음과 양

1. 주역(周易)에 나타난 태극사상
2. 태극도설(圖說)에 나타난 태극사상
3. 주역과 도설의 음양설 대비(對比)와 발전

#### II. 합덕(合德)에 대한 고구

1. 덕(德)에 대한 개념
2. 덕(德)의 연원(淵源)과 작용(作用)
3. 음양합덕과 정음정양
  - 1) 우주 생성, 존립의 원칙

#### 2) 인간의 생활원칙

#### 3) 생리와 심리의 유지 규범

#### 4) 가정과 이웃간의 규범

#### 5) 정치, 경제의 원동력

#### 6) 합덕과 정음양(正陰陽)의 상관관계

#### III. 21세기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음양합덕

#### 1. 지도이념의 대원칙

#### 2. 가치관 수립의 초석

#### 3. 민족의 개벽공사, 남북통일

#### 4. 후천개벽의 세계평화

#### 맺 는 말

\* 전해사 교수

## 머 리 말

8·15 광복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아닌 나이 먹은 세대 그 가운데도 환갑을 지난 사람들 가운데는 태극기를 모르고 자란 사람들이 많다.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고 나서 대륙에 손을 뻗치기 시작하다가 소위 대동아전쟁을 일으켜 한국어 말살, 성씨(姓氏) 바꿈의 만행을 자행하던 판국에 기미년 3·1운동때 손과 손을 잡고 흔들며 만세를 외치던 태극기를 국민의 눈에 비치게 놔둘 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6·70대 사람들은 모두 태극의 음양양의를 보고 자랐다. 그것은 그들 부친의 갓집(갓笠)을 넣어 두는 통과 모친의 빗집(櫛筩= 머리 빚는 참빗, 열레빗을 넣어서 접어두는 용기)에는 거의 다 태극 음양과 8괘가 장식으로 그려져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걸 보았었다. 뜻있는 가정에서는 한국의 국기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대개는 매일같이 보면서도 무언지 모르고 자랐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일을 지금 탓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태극 음양 4괘의 국기를 사용은 고사하고 알기만 해도 탈을 당하던 때였으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나의 음(陰)과 하나의 양(陽)을 도(道)라 이른다(一陰一陽之謂道)<sup>1)</sup>하는 주역(周易)의 가르침은 일반인으로서의 아예 배워보지도 못했던 시대니 만큼 매일처럼 그것을 본다고 해도 그저 물품의 장식으로나 알고 지냈을 뿐인 것이 상례이었다.

그것은 태극이 무엇인지 그 양의인 음양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향다반하게 말로서 표현하고들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실례로 옛날 사람은 말수가 적고 좀 비밀스러운 사람을 그 사람은 음자(陰者 <음한 것>)가 많다고 했고 노골적인 사람의 성질을 아주 양정(陽情)이라고 하였다. 좀 야한 말이지만 요즘말로 색시한 관능적인 여자를 보면 그 여자 음골(陰骨)로 생겼다고 했고 정력적인 남자를 양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음양의 양의가 남녀의 성격이나 성적인 것으로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

1) 주역 계사 상전(繫辭 上傳) 제5장

아무튼 태극의 양의(兩儀) 곧 음양을 도상(圖像)으로 보고 귀로서 듣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주우(宙宇)<sup>2)</sup> 생성의 원리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 무생물 그리고 형이상, 형이하<sup>3)</sup> 인간만사의 근원인 것을 모르고 살아온 우리 민족이었다.

그러나 을유 8월 15일 조국의 광복과 함께 태극 8괘(국기에는 4괘)의 깃발을 자유, 해방과 함께 마음대로 휘둘렀고 드디어 정식 국기로 제정되어 오늘의 우리 머리 위에 날리고 있어 가위 국장(國章)<sup>4)</sup> 처럼 되었으니 이땅에 삶을 누리고 있는 겨레의 모두는 이 태극, 음양의 그늘아래 그 기(氣)를 받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이제는 초등학교들 까지도 음양과 건·곤·감·리(乾坤坎離)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급되어 있으니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원리, 이 합덕의 진리 가운데 모두는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적 원리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 있으니 이것이 뜻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시대를 예견하였음인지 대진(大眞=大巡眞理會의 약어)의 도주는 도조의 사상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옛사람의 사상을 체인(體認=몸소 인식하는 것)하여 음양합덕의 교의를 첫째로 제시한 새로운 종교단체를 창도(創道)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대순진리회며 그 종지의 선두가 바로 이 음양의 합덕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한 배달의 겨레로서 매일 우러러 보는 태극양의 음양합덕의 깃발과 함께 모든 국민의 가슴마다 또 가정마다, 마을마다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가 이 큰 우주 대진리의 큰 뜻 가운데서 생활하지 않아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 한국인도 아니고 또 동양인도 아닌 서구인의 세계적인 과학자는<sup>5)</sup> 한국의 태극 음양에 도취하여 자기의 평상복 코트의 앞가슴과 집 대문에까지

2) 宙宇(주우) - 우주와 같은 말. 淮南子 齊俗訓 「住古表今謂之宙 四方上下謂之宇」에서 온 말

3) 주역 계사상전 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

4) 헌법에 꼭 國章이라고 정한 것은 아니지만 태극기가 국기로 됨에 따라서 태극문양이 한국을 상징하게 되었다.

5) 덴마크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닐스·보어를 말함(뒤에 상세히 소개함)

태극도상을 그리고 생활했는데 태극민족<sup>6)</sup>이라고도 할 우리들의 관심이 다른 서양의 허튼 문화에 젖어 본연의 자세를 잃고 있는 것이 태극 음양 국기를 받아들여 할 본분을 잊고 사는 바로 옛말 그대로 근본을 잊어버린 [忘其本] 한 패역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남북이 합덕하지 못하고 있는 반세기에 남쪽만의 독립으로 된 상태인데도 정치에서, 경제에서, 사회, 문화 무엇하나가 합덕이 되지 못한 배덕(背德)의 현장에서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각급 학교의 쫄식(黜食)<sup>7)</sup> 아동이 수만명 있는 반면에 한벌에 5백만원, 천만원짜리 옷이 경쟁적으로 팔리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며 국민은 경제 위축되어 있고 민족관, 국가관마저 위축되는데 정치인은 대통령병, 국회의원병에 걸려서 허덕거리고 있다.

여(興)와 야(野)가 합덕하고 노사(勞使)가 합덕한 국가, 남편과 아내가 합덕하는 가정, 이웃끼리, 사람끼리 음양합덕의 진리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끄적거린다.

## I. 태극의 양의(兩儀) - 음과 양

태극이란 말이 중국 주(周)나라 시대에 생겨났지만 무극이란 말이 태극의 후에 송(宋)대에 생겨진 것처럼 음과 양의 말 또는 관념도 태극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훨씬 소급하여 원시시대 문자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음이니 양이니 하는 말도 그렇지만 태극이니 8괘, 그것도 건·곤·감·리·간·태·진·손(乾坤坎離艮兌震巽)같은 고급한 형이상<sup>8)</sup>의 관념은 인간

6) 40년전 太極開發株式會社 대표이사 申正一씨가 쓴 논설에 우리 민족을 태극민족이라고 자주 쓰고 있었다.

7) 일본인이 음을 따라 쉽게 고친 缺食, 缺格 등은 한국식으로 闕食, 闕格으로 쓰는 것이 옳다. 闕位만은 안 고치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인이 그냥 쓰니까 그러는지 모를 일이다.

8) 形而上 - 주역 계사상전 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에서 비롯된 말.

西歐文化가 들어온 다음 metaphisica를 形而上 phisica를 形而上으로 번역 사용하게 되었다.

에게 문자의 성립과 함께 인문이 고도로 발달한 이후에 정착하게 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니 호모엘렉투스(homo electus)에서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sup>9)</sup>로 넘어온 인간들은 해와 달, 낮과 밤, 물과 불, 암컷과 수컷, 찬 것과 뜨거운 것, 강한 것과 약한 것 등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종합되어 두가지로 분류되는 관념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후에 음, 양으로 표현하는 분류의 시초가 된 것이다.

그래서 글자가 생겨나기전 하나의 상형(象形)으로 --, -의 도상(圖像)이 쓰이게 된 것이 음양사상의 시초가 아니었던가 한다. 이 음양을 표시하는 도상을 너무 철학적으로 또 차원 높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시시대에 가장 알기 쉽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가장 신비한 것으로 여기던 관념에서 이러한 괘상(卦象)을 삼았다는 설이 있다.

그것은 주역 8괘에 사용하는 음고 양의 표상인 --, -, 이 두가지는 별것이 아닌 암컷과 수컷의 성기(性器)를 상징화해서 생겨났다는 것이다.<sup>10)</sup> 후에 한자에 凹(요), 凸(철)의 글자가 생겼지만 바로 역(易)의 음효(陰爻)인 --, 양효(陽爻)인 -의 도상의 취의가 그 형상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근엄한 유학자들 가운데는 성인이 만든 우주원리의 도상인 음과 양이 가장 비외(卑猥)한 인간의 생식기를 상징했을까 하고 말할는지 몰라도 고도로 발달한 종교에서도 종교의 진리와 그 연원을 인간의 성(性)과 성기(性器)에 두고 있는 것을 알면 이러한 설을 수긍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교에서 소승(小乘) 상좌부(上座部)의 불교가 대승(大乘) 대중부의 불교로 발전하다가 금강승(金剛乘)<sup>11)</sup>이라고 불리우는 밀교(密敎=비밀불교의 준말)가 생겨나면서 그 본존격이 되는 두가지 만달라(mandala = 曼荼羅)<sup>12)</sup>가 태장계(胎藏界) 만달라, 금강계(金剛界) 만달라인데 탄트라(tantra)<sup>13)</sup>불교에서

9) 호모에렉투스(원시인), 호모사피엔스(예지인)

10) 경북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교재에서(1959)

11) 金剛乘 - 흔히들 밀교라고 부르지만 viyana(小乘=작은수레 <탈 것>), mahayana(大乘)에서 발전한 밀교 그 가운데도 후기밀교를 varsayana(金剛乘)라고하여 금강석 같은 신심을 상징하고 있다

12) mandala - 불교의 본질을 도상화 한 것, 밀교에서는 불상대신 만다라 그림을 모시고 법요를 한다

13) Tantra buddhism - 탄트라라는 진실된 말씀의 뜻, 그 진실을 성의 본능이라고 말한

는 태장이 나타내는 연꽃은 여성 생식기의 상징이고 금강(석)이 표징하는 공이 [杵]는 남성 생식기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심지어는 본초불(本初佛)<sup>14)</sup>이라고 해서 여래와 보살이 마주 앉은 자세로 포옹 성교하는 상을 봉안하기도 하고 그 성의 극치를 극락(極樂)보다 더한 대락(大樂)<sup>15)</sup>이라고하여 성 교합의 극치를 종교의 극치와 결부시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 음양을 무엇보다 먼저 남녀 구합(媾合)과 그 물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는 것을 하나의 농담이 아닌 수긍성 있는 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주역 계사에 하늘과 땅이 어울려서 만물이 이루어지고 사나이와 계집이 정기를 합해서 만물이 살게된다(天地絪縕 万物化醇 男女媾精 万物化生)<sup>16)</sup>고 한 것을 보아도 하늘과 땅 함께 남자와 여자 곧 사람을 동격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하늘과 남자는 곧 양의 동의어(同義語)가 되고 땅과 여자는 음과 같은 뜻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아무튼 유사전(有史前)의 일들은 다만 오늘 우리들의 추리, 추정일 뿐이고 오직 문헌을 통한 기록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시각(視角)으로 보는 관(觀)이 될 뿐이니 음양의 도(道)는 변할 리가 없지만 그 보는 바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관점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바, 이것의 변화(變化) 그 자체도 곧 음양의 조화(造化)라고 볼 것이다.

아무튼 역의 근원은 주역 곧 역경에 연원을 두는 것인 바, 음양의 도리는 우주간의 모든 현상, 사회 전반의 변화를 원리적으로 가르치는 철학사상인 음양사상을 역에서부터 고찰해 나가는 것이 순서(順序)라고 생각한다.

---

다

14) 본초불(Adibuddha) - 남녀가 앉은 자세로 교합(交合)한 불상. 歡喜佛이라고도 한다

15) 대락(Mahasukha) - 우주 생명력 궁극의 성취(成就)인 대환희의 경지, 有漏해탈의 순간

16) 주역 계사상전 제5장

## 1. 주역에 나타난 태극사상

주역 또는 역이라고 칭하던 서책을 송(宋)대의 주자(朱子)<sup>17)</sup>가 역경이라고 하여 시경(詩經), 서경(書經)과 함께 경서(經書)의 하나로 우대하게 되었다. 주역의 주란 말은 나라 이름의 주(周)인 것이다.

이 주역은 한사람이 한시대에 쓴 책이 아니라, 시대가 다른 4 성인의 손으로 이루어진 책이니 8괘(卦)는 복희(伏羲)<sup>18)</sup>, 64괘사(卦辭)는 문왕(文王)<sup>19)</sup>, 384효사(爻辭)는周公(周公)<sup>20)</sup>, 10익(十翼)은 공자(孔子)의 손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주역은 상·하경(上下經)과 10익(十翼)의 3부로 되어 있는데 상경(上經)은 건위천(乾爲天)에서 이위화(離爲火)까지 하경(下經)은 택산함(澤山咸)에서 화수미제(火水未濟)까지에 이른다.

10익(十翼)이란 상단전(上象傳), 하상전(下象傳), 계사상전(繫辭上傳), 계사하전(繫辭下傳), 문언전(文言傳), 설괘전(說卦傳), 서괘전(序卦傳), 잡괘전(雜卦傳)의 10전(傳)이다.

그런데 역이 생겨난 것은 더 오래전부터여서 하(夏)대에는 연산(連山 = 역의 이름이 아니지만 원리는 같음)이라하고 은(殷)에는 귀장(飯藏), 그리고 주(周)에는 역(易)이라 하였으며 이 세가지를 3역(三易)이라 일컫는다.

이 모두가 상고시대 인민들이 천변지이(天變地異)와 또는 공포의 운명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성인들이 천지 음양소장(消長)의 법칙을 찾아 음양 8괘를 만들어 복서(卜筮)로서 판단 교화하였으니 따져보면 역은 본래는 점서(占書)의 방법에 앞서 음양의 대의적 원칙이 인간에게 우주관, 인생관을 부식(扶植)시키는 위력을 지니고 있어서 오늘날까지 동양철학의 근본교의가 되어 경서로서 전해온다. 심지어는 공부자(孔夫子)와 같은 성인도 책을 엮은 것이 세차레나 끊어지도록(葦鞭三絕) 탐독 연찬하였다고 하며 10익(十

17) 朱子(이름 熹, 자 元晦, 晦庵) 해박한 지식으로 易本義, 太極圖通書, 近思錄 등과 文集 100권, 語類 80권 등을 저술, 性理學, 程朱學, 朱子學으로 불리우리 만큼 동양哲學의 巨擘이다.

18) 복희 - 중국 전설의 재왕. 庖羲라고도 함

19) 문왕 - 발해 제3대왕 이름 大欽武

20)周公 - 주나라의 제왕, 文王의 아들 武王의 아우, 이름 旦

翼)까지 저술하였다고 하리만큼 높게 평가된 것이다.

우리가 음양 곧 태극의 양의를 논의하려면 역을 들지 않을 수 없고 그 역 가운데도 10익 가운데 계사(繫辭)의 말부터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10익이 공자의 저작이라든지 아니라든지 또 그 제자들의 저작이라든지 하는 논의는 본론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는 명제지만 공자도 위에서 말하듯 애독 속독을 한 것과 또 다음과 같은 논어의 말을 보아 유교에서 한 경전을 삼을 만 했던 철학, 윤리서로서 동양인 필독의 글이라고 할만하다. 공자의 말쑤를 소개하면

내가 몇해 더 지나 50에 역을 배우면 큰 허물없이 옳게 살 수 있을 것이다(加我數年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矣)<sup>21)</sup>

하는 것인데 이렇게 공자 같은 대성인도 역에 대한 관심 이상의 존중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인 만큼 역의 가치는 지대한 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주역 각 부문 가운데도 역의 진리를 가장 극명(克明)하게 나타낸 계사전(繫辭傳)의 몇군데서 역의 원리, 그 가운데도 음양양의에 관한 것을 찾아보기로 한다.

역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태극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가 4상(四象)을 낳고 4상이 8괘(八卦)를 낳으니 8괘는 좋고 나쁜 일(吉凶)을 정하고 길흉은 큰 업(業)을 낳는다(易有太極 是生兩儀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sup>22)</sup>

※ 양의 : 음과 양

4상 : 춘하추동 또는 老陽, 少陽, 老陰, 少陰

8괘 : 건곤손간진리감태 (乾坤巽艮震離坎兌)의 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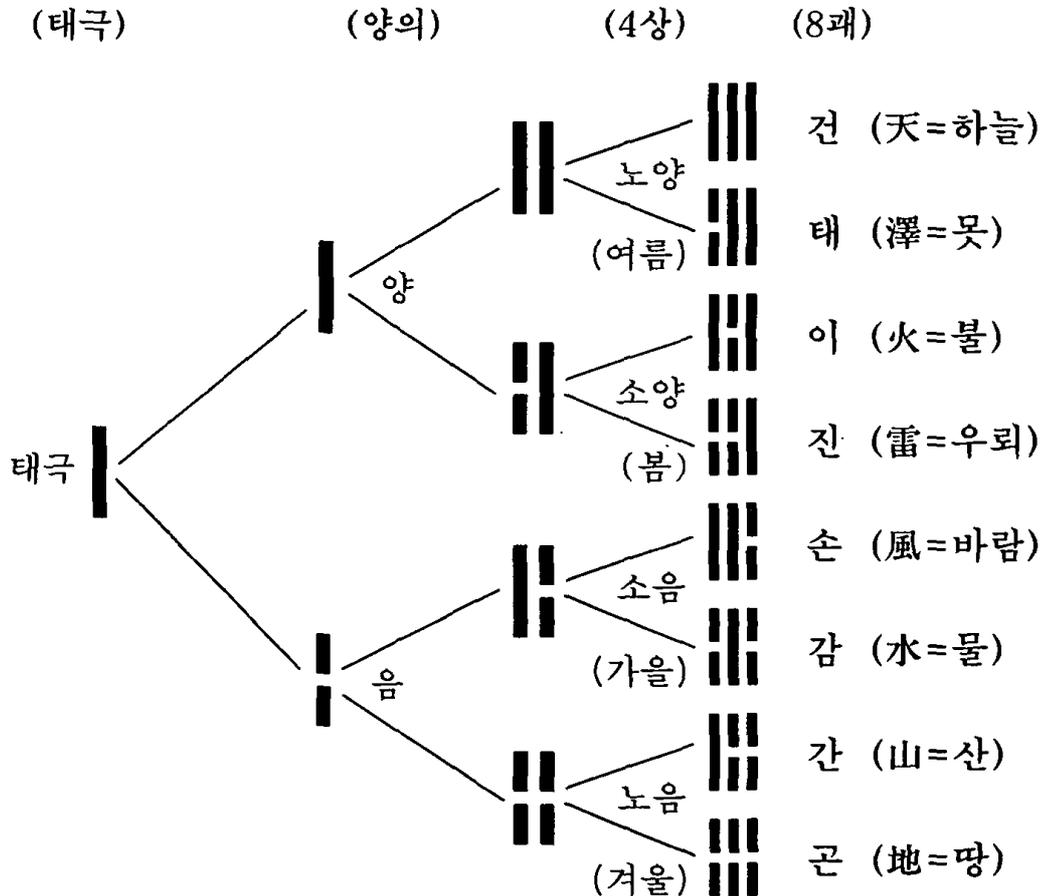
이것이 위에서도 말했듯이 음양2원론으로 출발했지만 후세에 와서 태극1원론화하게 되는데 2원론은 한(漢)나라에서 상수(象數)로서 발달하였으며 송

21) 논어 술이편(述而篇) 15

22) 주역 계사상전 제12장

(宋)대에 와서 철리(哲理)로서 1원화가 된다. 그러나 주자(朱子)의 주역본의(周易本義)에서는 두가지 설이 아울러 수용된다.

위의 태극에서 8괘로 발달하는 양상을 도상화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음(陰)과 양(陽)의 개념을 다시 들어볼 것도 없이 글자 풀이 그대로 음(陰)자는 '그늘 음', 양(陽)자는 '별 양'이다. 그래서 그늘진 곳(것)은 음이고 햇별이 쬐이는 곳(것)은 양이라고 하면 간단하지마는 우주에 뻑뻑하게 들어서있는 그 소위 삼라만상의 눈에 보이는 형이하적인 사상(事象)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사상이 모두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음과 양의 정의가 그리 간단하게 내려지지는 않는 것이다.

4상에서 8괘로 64괘 384효(爻)로 번져 나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복서(卜筮) 곧 점치는 실제에서는 변괘(變卦 또는 之卦라고도 한다)의 작용이 있어 2,304효로도 변하고 세년(歲年) 60, 월령(月令) 12, 일진(日辰) 60, 시각(時刻)으로 12(지(支)의 작용이 있고 또 6수(六獸)<sup>23)</sup>와 6친(六親)<sup>24)</sup>의 작용을 가하

면 우선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으로도 7억 1천 6백 6십 3만 6천 1백 6십이란 숫자가 나올 정도로 변화 발전하는 것이 역의 복서(卜筮)인 것이다.(이렇게 주역 6효점(六爻占)이란 716636160대 1의 확율(確率)로서 똑같은 날자에 똑같은 점괘는 도저히 나올 수 없으리만큼 우주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분석 해설하는 방법론적 활용은 참으로 무진장이란 말 그대로다.

그러나 음양 양의로 소상(遡上)하여 대충 생각나는 것만 해도 다음과 같이 된다.

	양(陽)	음(陰)
천체(天體)	하늘(天)	땅(地)
	해(日)	달(月)
자연(自然)	낮(晝)	밤(夜)
기후(氣候)	여름(夏)	겨울(冬)
	더위(暑)	추위(寒)
방위(方位)	위(上)	아래(下)
	동(東)	서(西)
	남쪽(南)	북쪽(北)
윤리(倫理)	성(聖)	범(凡)
	선(善)	악(惡)
지세(地勢)	높음(高)	낮음(低)
	넓음(廣)	좁은(狹)
운세(運勢)	재앙(災殃)	복덕(福德)
	길(吉)	흉(凶)
성별(性別)	사내(男)	계집(女)
	수컷(雄)	암컷(雌)
인간(人間)	군자(君子)	소인(小人)

23) 6수(六獸) - 靑龍, 朱雀, 勾陳, 騰蛇, 白虎, 玄武

24) 6친(六親) - 官鬼, 父母, 兄弟, 自身, 妻財, 子孫 모두 실제 복서(卜筮)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성격(性格)	강건(剛健)	유약(柔弱)
	적극(積極)	소극(消極)
	활동(活動)	안정(安靜)
	외향성(外向性)	내면성(內面性)
심리(心理)	희(喜)	비(悲)
신체(身體)	등(背)	가슴(胸)
	손등(手背)	손바닥(掌)
	양물(陽物)	음부(陰部)
수효(數爻)	홀수(奇數)	짝수(偶數)
색깔(色彩)	빨강(赤)	파랑(靑)
물건(物件)	겉(表)	속(裏)

이것은 생각나는대로 써 모아 본 것뿐, 천지 가운데 모든 현상, 그리고 우리 신체의 오장육부(五臟六腑) 또 모든 생각까지 다시 말하면 형상(形上), 형하(形下)의 모든 현상이 다 음양의 2원(二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음양의 위에 태극을 올려 놓아 결국은 포용적(包容的)인 1원론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이 음양 사상의 발전이다.

역에서는 음양과 인간 남녀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극명하게 설하고 있어 뒤에 소개하는 주역계의 태극도에도 그냥 잉습(仍襲)되는데 이것은 원시시대부터 음양사상이 형이상적인 고매한 철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남녀의 성(性)에서 비롯된 사상의 발전이 아니었던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연유(緣由)가 된다.

건도(乾道)는 남자를 이루고 곤도(坤道)는 여자를 이루어 건은 근본의 시작을 맡아있고 곤은 만물의 육성을 성취한다.(乾道成男 坤道成女 乾知大始 坤作成物)<sup>25)</sup>

이로써 건(乾) 곧 남성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곤(坤)인 여성은 생명을 화육·완성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역의 원리 곧 우주 생명의 원리를

25) 주역 계사상전 제1장

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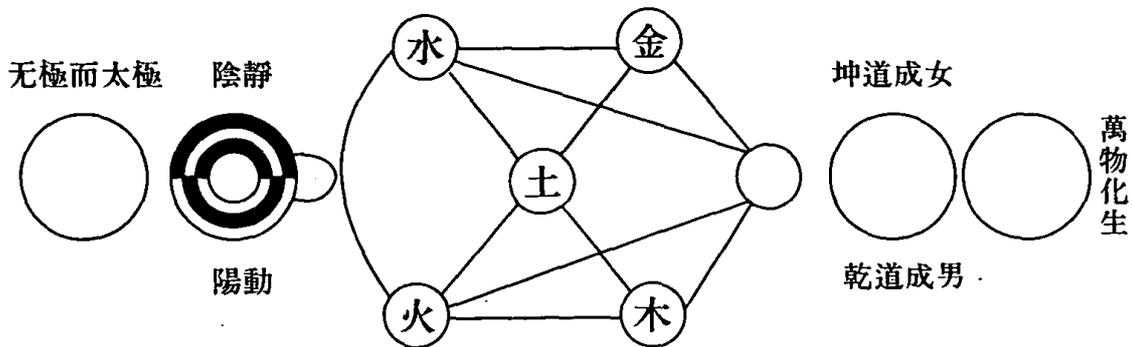
## 2. 태극도설(太極圖說)에 나타난 태극사상

태극도설은 송(宋)나라때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sup>26)</sup>가 지은 글인 바 이 이론이 주자(朱子)에 의해서 정리 발양(發揚)되어 마침내 중국 내지 한국철학의 중심사상이 되기까지에 이르렀다. 때문에 그를 가리켜 중국 근세철학의 비조(鼻祖)라고까지 하고 있다.

그는 무극에서 비롯하는 과정(過程)을 도해(圖解)와 함께 도설(圖說)로서 표현했는데 이론의 핵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다음과 같은 한 절(節)로 결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5행(五行)은 하나의 음양이며 음양은 하나의 태극인데 태극은 본시 무극이다.(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无極也)<sup>27)</sup>

태극도설이란 그리 길지않은 문장은 다음의 태극도를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먼저 그가 직접 그린 태극도를 소개한다. 이 그림만 보아도 그가 어떻게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이 몇백년 중국을 지배한 우주관이 된 것만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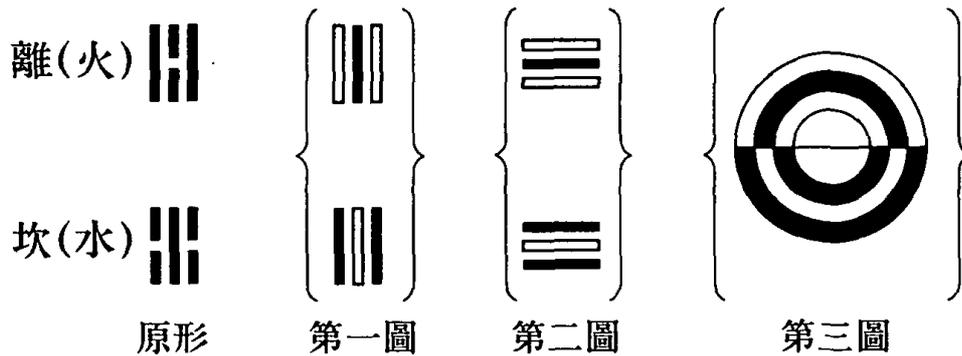
26) 주돈이(1017~1073) 북송(北宋)의 유학자. 처음 이름 돈실(敦實), 자 무숙(武叔) 호 염계(濂溪), 저서 태극도설, 통서(通書), 남송(南宋)의 주희(朱熹)에 의해 성리학으로 집대성됨.

27) 염계 太極圖說

※ 태극도의 출처(出處)

염계의 태극도라고 하여도 염계의 창작은 아니라는 것이 정설(定說)이다.

고래의 도가(道家) 그 가운데도 도사(道士) 진희의(陳希夷)<sup>28)</sup>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그 변화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감(坎)과 이(離)를 대립시킨 것으로 고래의 도가(道家)가 사용하던 도상(圖像)이다.

그런데 태극도의 그림은 염계의 창작이 아니고 도사(道士) 진희의(陳希夷)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정설화(定說化)해 있는데 유가(儒家)에서는 도가(道家)에서 사용하던 것을 약간 변개(變改)한 것이라고 한다.<sup>29)</sup>

그러면 위의 그림을 오늘의 우리가 설명하기 보다 직접 주자(周子=곧 염계)의 입을 통해서 들어 본다. 그것은 이 태극도에 대한 태극도설인 바 길지않기 때문에 전문을 소개한다.

무극이 태극이다. 태극이 동(動)해서 양을 낳고 동이 극(極)하면 정(靜)이 된다. 정하여 음을 낳고 정이 극하면 다시 동한다. 한 움직임, 한 고요함이 서로 그 뿌리가 되어 음과 양으로 나뉘어 양의(兩儀)가 선다. 양이 변해 음과 합하여 수화목금토를 낳으니 5기(五氣)가 순탄하게 퍼지고 4시(四時)가 진행한다.

(无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

28) 진희의 이름 陳搏 자 希夷 송대 도가(道家)의 거장, 음양술에 능하여 진부상서(陳搏相書)외에 역술, 명리학 등의 저술을 남겼다. 태극도 그림은 그가 그린 것이 기준이라고 한다

29) 日本 大同館 石川誠 支那哲學史綱

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30)

여기서 보는 바로 연계는 이 도설에서 몇가지의 중요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태극에서 음양이 행겨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태극이 동(動)하면 양이 생겨나고 정(靜)하면 음이 생긴다고 해서 태극의 동정으로서 용(用)을 삼은 것이 주역의 태극사상, 음양사상에서 진일보한 감을 주고 있다.

또 다음은 동과 정(靜)의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으니 동이 극심해지면 정(靜)이 되고 정(靜)이 극심하면 다시 동(動)이 된다는 모순상태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설하고 있다. 아무튼 따져보면 이것은 기술자(記述者) 마음의 세계에서 상상과 추리 속에 구성한 이론이므로 동(動)의 극이라든지 정(靜)의 극이라는 것이 꼭 존재한다든지 또 상호 상대방의 인(因)이 된다는 것을 물리적 방법의 이론상으로는 믿기 어려운 사실임은 틀림없다.

그리고 음양에서 5행이 생기고 4시가 진행된다는 것도 역시 추상성을 띤 이론일 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생각해 둘 일이라고 한다.

이 태극도설은 조금 더 계속된다.

5행은 하나의 음양이며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고 태극은 무극이다. 5행이 생기는데 각각 그 성격을 하나씩 지닌다. 무극의 진(眞)과 2·5의 정(靜) [2기 곧 음양과 5행을 이룸] 이 오롯하게 엉켜서 건도(乾道)는 사나이가 되고 곤도(坤道)는 계집이 되니 두 기운이 교감(交感)하여 만물을 화생한다. 만물이 생겨나고 나서는 변화가 무궁하다. 오직 사람은 뛰어나서 가장 영명(靈明)하니 형상이 부족없이 생기고 신기(神氣)가 나타남을 알며 5성(五性)이 느껴 움직여 선악을 구별하니 만사가 나타난다. 성인이 중정(中正)한 인의(仁義)로써 정하여 인간의 극치를 정(靜)을 주로하여 세웠다. 때문에 성인은 천지와 함께 그 덕(德)을 합하고 일월(日月)과 그 차서(次序)를 합하고 귀신과 그 길흉(吉凶)을 합하니 군자는 길한 것을 닦고 소인은 흉한 것을 거둬들인다. 때문에 하늘의 도를 음양으로 세운다 하고 땅의도를 유강(柔剛)으로 세운다 하고 사람의 도를 인의(仁義)로 세운다 하고 또 처음 것을 찾아 마침을 돌이킨다고 하니 그로써 생사의 설을 안다. 크도다. 역이여! 그 지극한 것이 바로 이러한 저!

30) 주염계 太極圖說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一无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无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化生 而變化無窮焉 惟人也 得其秀而最靈 形其生而 神發知矣 五惟感動 而善惡分 方事出矣 聖人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序 鬼神合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立天之道 曰陰陽 立地之道曰柔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又曰原始反終 故知死生之說 大哉易也 斯其至矣)<sup>31)</sup>

이 태극도설이 그리 긴 글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그의 철학적 사색의 결정이 후인에게 많은 명제를 시사(示唆)하고 또 제시(提示)한다.

1. 음양의 상호모순과 상자 상보(相資相補)의 인과(因果) 작용
2. 천(天)과 인(人)의 감응(感應)  
(고대로 전해 온 것이지만 뚜렷한 체계로 정착시킨 것)
3. 음양 2기(二氣)에서 5행(五行) 및 만물이 생겨나는 것
4. 사람이 만물의 영(靈)이라는 고대(古代)사상의 정립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이론은 없이 다만 고래의 신앙을 계승한 것 뿐인 것을 변치 못한다) 아무튼 주자(朱子)가 연계가의 화설을 받아들여서 대성시키는 그 기초, 연기(緣起)를 제공하게 되어 연계 동양철학의 비조라고까지 흠모를 받게까지 된 것이다.

### 3. 주역과 태극도설의 음양설 그 대비(對比)와 발전

주역에 나타난 음양사상과 태극도설에 나타난 음양사상은 4세기의 연차(年差)가 있어서 그냥 옛모습대로 계승될 수가 없었을 것이니 역의 음양설과 도설의 음양설이 완전 동일할 수는 없고 도설의 음양설이 진일보(進一步)한 감이 있다. 하기가 역에서 보인 음양사상이라고해도 그것이 갑자기 돌출한 사상이었다고 할 수 없고 이미 인간의 진화와 함께 진작부터 서서히 발전해 내려온 사상이 주대(周代)에 와서 체계화하여 정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역에서의 음양설이 태극도설에서 보충된 후 다시 1세기를 지나서 주희암(朱晦庵)에게 와서 새로 개발되어 성리철학의 발판이 되었다.

31) 태극도설의 계속

그러면 일단 역의 음양설에서 태극도설의 음양설이 어떻게 발전한 것인가를 알아 본다.

(1) 첫째 역에서 설명한 태극의 위에 무극이 등장한다. 수백년동안 역(易)은 복서(卜筮)에 사용되고 그 원리와 또 이론으로서의 10익(十翼)이 이어져서 그것이 좋은 수양지침이 되기도 한 것인데 무극이 태극위에 올려지게 되므로 해서 음양체계에 새로운 이론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태극이 동(動)하면 양이 생기고 정(靜)하면 음이 생긴다고 해서 태극의 동정으로 음양이 생긴다는 원리를 제시해 있다. 거기에 또 동(動)이 지극하게 되면 정(靜)이 되고 정(靜)이 지극하면 동이 된다는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니 음양의 동정(動靜)이야 원래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해도 이것을 성문화(成文化)한 주자(周子)를 위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음양의 동정으로 음과 양으로 나뉘고 그 음양의 변합(變合=陽變陰合)으로 수·화·목·금·토의 5행이 순조롭게 생겨난다는 이론이 과학적 사실의 여부는 차치하고 추리, 추상의 construction이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3) 이러한 이론을 연역적(演繹的)으로 해설한 다음 다시 귀납적(歸納的)으로 해서

五行은 一陰陽也오 陰陽은 一太極也오 太極은 无極也라<sup>32)</sup>

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은 낳는다, 생긴다하는 자동사(自動詞), 타동사(他動詞)로서의 설명보다 바로 우주를 생성시킨 것을 무극이라고 해도 좋고 태극, 또는 태극의 음양양의라고 해도 좋고 5행이라고 해도 좋은 말하자면 음양이 곧 5행이고 동시에 역의 이론대로 8괘가 되는 하나의 무극, 하나의 태극, 하나의 음양이 곧 우주 그대로라는 것을 결론지은 것은 탁월한 안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위에 5행의 하나하나가 무극의 진(眞)인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한 것도 태극음양 곧 무극의 원리를 한마디로 가리키는 또한 탁설(卓說)이 아닐 수 없다.

(4) 연계는 인간이 만물 가운데 최령(最靈)의 존재임을 주장 하면서 건도

32) 주염계 태극도설에서

(乾道)가 사나이며 곤도(坤道)가 계집이 된다는 것과 이 두가지 곧 건·곤의 기운이 합한 가운데 만물이 조화(造化)하고 생육(生育)한다고 설한 것이 주역의 성격을 활성화한 동시에 결정적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만물의 화생(化生)이 인간 남녀에게 있다는 그것은 건곤 곧 음양이라고 해도 좋은 그 우주의 기운 그대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실로 석가모니가 말한 ‘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느니 또 증산이 말한 인존(人尊)시대라는 말보다 아예 우주 생성의 원초부터 인간이 우주의 기운 그대로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신령하다 [最靈] 한 것이 이론적으로 더 우세한 것을 표현한 것 같다.

(5) 또한 천도(天道)니 지도(地道)니 인도(人道)니 하는 도(道)의 본질이 또 인의(仁義)나 원시반종(原始返終)이 모두 음양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로써 죽고 사는 길도 알 수 있기에 크구나! 역이여 하는 말을 토했으리만큼 역에 심취한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태극도설도 그 발표 당시보다 1세기를 지내서 주자(朱子)같은 이의 이·기(理氣) 2원론의 철학적 구성과 함께 그 빛을 다시 받아 한국에 까지 절대적 영향력을 끼쳤으며 오늘에 대순진리회의 종지(宗旨) 제일 첫 자리에 오를만큼의 위력을 지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자(朱子)는 이기설(理氣說)의 입론(立論)의 근원으로 주자(周子)가 논한 태극이 곧 이(理)와 동일하다는 주장을 했으니 이것은 희랍철학의 로고스(logos=理)와 동궤(同軌)에 속하는 것인 바 그 로고스가 하느님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근간이 되듯, 대순사상에서는 증산을 무극신, 정산을 태극신으로 보는 것도 동서 신학의 근사치(近似值)를 발견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무극(無極)에 대한 것인 바, 과거 우주생성의 근본으로 태극을 앞세웠던 것이 그 태극의 앞에 무극을 설정하게 된 것이 노장(老莊)의 학(學)으로 도교(道敎)가 생겨난 다음 유교, 유학에 까지 그 영향을 미쳐 무극사상이 발상 창출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희암이 이기설(理氣說)을 내세우면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이(理)가 곧 태극이라고 설정한 것 때문에 태극설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있으니 천지 변역의 원리인 역이 점복(占卜)에 인용당하던

것을 성리학으로 발달시키게 된 것이다. 이것은 불교가 중국에 수입된 다음 불성(佛性)이니 견성(見性)이니 또는 그 방법론으로 선(禪)이니 하는 새로운 관념들이 퍼져 나가서 유교도 그 영향으로 성리(性理)의 학이 생기고 마음 [心] 을 성찰(省察) 수양(修養)하는 과정도 첨가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원래 동양사상은 사막지대에서 발상한 종교사상들과는 달라서 남을 극복하고 내 주장만을 살리는 것을 능사로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후세에 와서는 유·불·선(儒佛仙) 3교가 그 근본은 하나라고하여 3교합일(三教合一)적 경지까지로 진전이 된 것이다.

그러한 후세의 발전과정을 보아서도 정통적인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중국 철학사상에 도교에서 또는 불교에서의 우수한 교의가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본래의 사상이 위축, 감소될리도 없으며 또 발전에 지장도 없다. 그리고 포용 총섭(總攝)의 의미에서 도로 대성의 발판이 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불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도교의 경우에도 그러했으며 또 모든 종교사상이 그러한 태도를 지녀야만 할 것이 아닌가 한다.

### Ⅲ. 합덕(合德)에 대한 고구(考究)

#### 1. 덕(德)에 대한 개념

음양의 합덕이 무슨 뜻이냐고 종종 묻는 이를 대한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풀이해서 ‘음양의 덕을 합하는 것’ 또는 ‘음양이 합한 덕’이라는 정도의 답을 곧잘한다.

그러면 다시 음양의 덕은 무엇이냐?

음양이 합쳐진 덕은 또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덕(德)의 어의(語義)를 사전에서 찾아본다.

- 사람의 품향의 총칭

- 지선(至善)의 마음가짐
- 정의(正義)
- 남에게 베푸는 것 [布施]
-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
- 좋은 가르침(德化)(德敎)
- 이득(利得)과 통함

여기에서 그에 따른 많은 갈래의 말들이 생겨나니 그런 숙어(熟語)들을 모아 본다. 그것은 덕(德) 그 자체의 정확한 개념을 찾아 보기 위해서다.

덕화(德化), 덕목(德目), 덕행(德行), 덕성(德性), 덕음(德音), 덕교(德敎), 덕망(德望), 덕의(德義), 덕택(德澤), 덕육(德育), 덕정(德政) 등 이밖에도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 다음 아랫자가 덕으로 된 숙어를 찾아보면 또한 만만치 않게 많이 있다.

일덕(一德), 대덕(大德), 인덕(仁德), 천덕(天德), 문덕(文德), 실덕(失德), 공덕(功德), 유덕(有德), 지덕(至德), 부덕(否德), 효덕(孝德), 미덕(美德), 위덕(威德), 후덕(厚德), 패덕(悖德), 은덕(恩德), 고덕(高德), 성덕(聖德), 부덕(婦德), 보덕(報德), 복덕(福德), 양덕(陽德), 음덕(陰德), 적덕(積德), 학덕(學德), 무덕(武德), 박덕(薄德) 등 이것 말고도 많은 어휘들이 있다.

이렇게 숙어들을 나열해보면 막연한대로 덕의 개념이 성립되지마는 뚜렷한 정의는 파악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덕이란 ‘선(善)과 의(義)의 성행(性行)으로 남에게 베풀고 또 받는 것, 그리고 어진 교화를 대중에게 미치게 하는 것 등 몇가지 말로서 덕을 일단 규정 지을 수밖에 없다.

원래 동양의 문자는 서구의 표음문자(表音文字)와 달라서 상형(象形) 상징(象徵)적인 면에서 일자다의(一字多義)로 쓰이는 것이 많다. 인도의 범자(梵字=sanskrit)도 그렇지마는 한자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렇다.

범자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들면 사바하라고 흔히들 외우는 말은 스바하(svaha=娑婆訶)가 원음인데 그 뜻은 사용에 따라 길상(吉祥)하다·원만하다·재앙이 끄쳐지라·좋은 일이 더해지라·소원성취되라·머문데가 없다(無住)·생각하고 있다 등으로 쓰인다.

그보다도 더하게 한자(漢字)의 어의는 참으로 형이하에서 형이상으로 너

무 뜻이 많은 갈래로 쓰이니 도덕(道德)이라고 쓰이는 길도(道)자 하나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통행하는 도로 곧 길·사람이 지켜야 할 조리(條理)·학문, 예악, 정치, 사물의 방법·순종한다는 뜻·한편의 문장·말하는 것(도덕경의 처음 可道라는 道는 말한다는 뜻, 非常道라는 뒤의 道는 진리라는 뜻)·의지하는 것·인도하는 것 그밖에도 속어가 되면 천도(天道)니 인도(人道)니 공도(公道)니 하는 말에서 철도니 고속도니 지하도니 또 서도(書道)니 주도(酒道)니하여 너무도 많아서 서구 사람들은 이해도 되지 못하거니와 다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사족(蛇足)같은 말을 늘어 놓은 것은 다음에 도(道)와 덕(德)이 함께 논의될 것이므로 그 필요의 전제로 그리한 것이다.

## 2. 덕(德)의 연원(淵源)과 작용(作用)

위에 덕에 대한 사전(字典)적 해석을 붙였지만 사전의 비조(鼻祖)격인 강희사전(康熙字典)<sup>33)</sup>에 나와 있는 한자어로서의 해석을 다시 찾아 본다.

德 德行也 (덕행)

德行之得也 (덕행의 소득)

泰教也 (착한 가르침)

感恩曰德 (은혜를 느끼는 것)

역시 이런 한자어를 임용(仍用)한 것이 우리말로 된 사전이므로 위에서의 소개의 내용이나 큰 다름이 없다.

주역 계사전에 나와 있는 덕에 관한 말들을 찾아 본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성덕(盛德)이라 한다(日新之謂盛德)<sup>34)</sup>

33) 康熙字典 日本 博文館(明治 25年)

34) 주역 계사상전 제5장

대저 역은 성인이 덕을 높이고 업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夫易 聖人 所以崇德傳而廣業也)<sup>35)</sup>

덕은 성대함을 말하고 예(禮)는 공손함을 말한다(德言盛 禮言恭)<sup>36)</sup>

천지의 큰 덕은 생(生)하는 것이다(天地之大德曰生)<sup>37)</sup>

양괘는 음이 많고 음괘는 양이 많다. ... 그 덕행(德行)이 무엇인가?

양은 1군(一君)에 2민(二民)이니 군자의 길이오 음은 2군(二君)에 1민(一民)이니 소인의 길이니라(陽卦多陰 陰卦多陽 ... 其德行何也 陽一君而二民 君子之道也 陰二君而一民 小人之道也)<sup>38)</sup>

이를 이용해서 몸을 평안히 하는 것은 덕을 높이는 일이다(利用安身以崇德也)<sup>39)</sup>

건(乾)은 양물(陽物)이고 곤(坤)은 음물(陰物)이니 음양이 합덕(合德)하여 덕을 합해서 강(剛)한 것과 유(柔)한 것이 몸체가 된다.

이렇게 하여 천지의 길을 가려 취하고 신명의 덕에 통한다(乾陽物也 坤陰物也 陰陽合德 而剛柔有體 以體天地之道 以通神明之德)<sup>40)</sup>

대저 대인은 천지와 함께 그 덕을 합하고 일월과 그 밝음(明)을 합하고 4시(四時)와 그 차서(次序)를 합하고 귀신과 함께 그 길흉을 합하고 ...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sup>41)</sup>

이상과 같이 다시 주역에서 찾아봤지만 그래도 덕이란 것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음양의 상관관계와 그에 따른 작용이 어슴프레하나마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느낀다. 모든 만물을 낳는 것이 천지의 대덕(大德)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괘(卦)의 작성을 통해서 1양 2음이 군자이 길로서 덕행이 되고 1음 2양이 소인의 길로 부덕(不德)이 된다는 것도 이해되는 것이다.

그보다도 본고(本稿)의 주론(主論)이 되는 음양의 합덕에 이르러 그 합덕

---

35) 주역 계사상전 제7장  
 36) 주역 계사상전 제8장  
 37) 주역 계사하전 제1장  
 38) 주역 계사하전 제4장  
 39) 주역 계사하전 제5장  
 40) 주역 계사하전 제6장  
 41) 주역 문언전(文言傳)

이야 말로 우주의 대도(大道)를 가려내는 것이고 천지신명의 대덕(大德)과 통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흔히들 도덕이라는 속어를 즐겨 쓰지마는 이것을 노자(老子)는 도덕경(道德經)에서 극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다.

도는 낳고 덕은 기른다. 또한 사물형(물형(物形))의 세(勢)가 이루어진다 (道生之 德畜之 且物形之勢成之)<sup>42)</sup>

도는 만물을 낳는 근원이지만 덕은 축양(畜養)하는 1기(一氣)로서 만물을 기러 가는 것이라 하였다. 그로써 천지 2기(二氣)의 2덕(二德)이 합해서 만물의 형상이 생기니 공간적으로는 상하4방이 안배되고 시간적으로는 대대세세(代代世世) 모든 생물이 생명을 계승 연장하여 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따져보면 도(道)가 낳고 덕(德)이 기른다는 말도 하늘이 낳고 땅이 기른다는 말이며 그 하늘이 양(陽)이며 땅이 음이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造化)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만물은 자연법칙에 의해서 생생화화(生生化化)하고 또 원시반본(原始返本)하는 순환을 계속한다고 볼 것이다.

여기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해 둔다. 그것은 조선 중종(中宗)때 주세붕(周世鵬)<sup>43)</sup>이 지은 다음과 같은 시조가 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부모 곧 아니시면 내몸이 없을랴다  
이 덕을 갚으려하니 하늘가이 없으셨다.<sup>44)</sup>

이것을 교단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서 ‘이 시조에 아버님이 날 낳고 어머님이 길렀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지않았습니까? 어머님이 낳고 아버님이 교육에 수고하셨다고 해야지요’하는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때에 이 주역을 위시하여 음양의 원리를 모르는 선생이라면 답이 막히기 쉽다. ‘하늘이 낳고 땅이 기른다’는 음양의 원리 속에 시경(詩經)에서 읊

42) 노자 도덕경

43) 주세붕(1495~1554) 중종때 紹修서원을 창설한 학자

44) 주세붕의 武陵雜稿에서 (무릉산은 조정산 탄생의 경남 漆原현에 있음)

은 것을 시조로 번역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父兮生我 母兮鞠我 拊我畜我 長我育我 顧我復我 出入復我 欲報之德 昊天罔極<sup>45)</sup>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쓰다듬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보살피고 나고들고 보살피신 그 은덕 값으려도 하늘이여 무정하다)

### 3. 음양합덕과 정음정양

#### 1) 우주생성 존립의 원칙

위에서도 누누히 논한 바 우주의 생성발전은 일음일양(一陰一陽)이 도(道)가 되어 우주가 생성하고 또 존립 진행된다는 이론은 동양철학의 형이상적인 영원한 진리지만 그 음양이 덕이 화합(和合) 화합(化合)하기 때문에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다. 다시 주역 계사에 있는 구절을 기록한다.

乾陽物也 坤陰物也 陰陽合德 而剛柔有體 以體天地之撰 以通神明之德<sup>46)</sup>

양과 음과의 양의 동(動)이 없어서 합덕이 없다고 하면 조화(造化)의 용(用)을 할 수 없이 체(體)로서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 된다. 이로써 만물이 화순(化醇)하고 화생(化生)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참으로 태극양의 음양의 중핵(中核)적인 사상이 합덕인 것이다.

이 음양합덕이 사려를 작은 물질에서부터 또 생물 무생물 자연현상에 까지 훑어보아 새삼스럽게 실험 실감하려 한다.

#### 2) 인간의 생활 원칙

우리의 생활주변이라기보다 생활 그 자체가 음과 양, 그 음양의 합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TV나 오디오에 스위치를 넣으면 양전(+), 음전(-)의 합덕으로 소리를 내는 것을 본다. 식탁을 대하면 양성 음식인 소고기를 대하고 음성 음식인

45) 시경 小雅蓼莪

46) 주역 계사하전 제6장

산·야채를 대한다. 산성(酸性)이니 알칼리성이니는 몰라도 음성 양성은 생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음양을 고루 섭취하여야 하는 것이 인간이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다. 그 걸겹데기는 양이고 안속은 음인 것이야 설명조차 할 것없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합덕의 오묘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걸음을 걸어 사무실로 공장으로 출근하는 것은 양의 움직임이요, 의자에 앉아 쉬는 것은 음의 정(靜)이다.

컴퓨터를 두드리든지, 계산기를 누르는 것은 음양의 합덕조화요, 커피 한 잔, 쥬스 한잔 마시는 것도 음과 양과 양과 음의 합덕조화가 아닐 수 없다.

출근 때나 퇴근 때 자동차나 전동차 또는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는 것 모두가 음양 합덕의 소산임은 누구든지 알 수 있다. 퇴근길의 맥주 한 컵, 담배 한 개피 어느것 하나 음양합덕의 소산 아님이 없으니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자고 깨는 모두가 음양의 합덕 조화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 3) 생리와 심리의 유지규범

인체생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나 의사들처럼 인간의 육체변화에 대해 민감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인간을 소유주라고 하느니만큼 우주 음양오행의 변화 그대로 행주좌와(行住坐臥)하는 것이 인간이랄 것이다.

동양의학은 서양의학과는 다르게 근본인간의 체질과 증상을 음양5행으로 대처 진맥 치료하며 약의 화제(和劑)<sup>47)</sup>도 그에 따라서 하고 있다. 또 조선 조말에 할경도인 이제마(李濟馬)<sup>48)</sup>가 4상의학(四象醫學)<sup>49)</sup>이라고 해서 음양의 4상(四象)을 기준으로 인체를 분류하고 체질별로 화제를 내어 치료하는 것을 체계화한 것도 있다.

동양의학이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기에 의학입문서로서 황제내경(黃帝內經), 소문영추경(素問靈樞經)<sup>50)</sup>이니 해서 경(經)자를 붙인 것을 봐도

47) 화제 — 서양의학에서는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동양의학에서는 화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약제의 조화(調和)라는 뜻이다.

48) 이제마(1838~?) 호는 東武, 東醫壽世補元을 내고 四象의학을 창안

49) 4상의학 — 인간의 체질을 太陰, 少陽, 太陽, 小陽의 4가지로 분류하여 그에 따라 치료하고 약을 쓰는 의술

50) 황제내경, 소문영추경 중국서 전래해오던 의학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한(漢)대부터 아홉가지 학문의 유의(流儀)가 있어서 구류학파(九流學派)<sup>51)</sup>라고 불렀는데 유가자류(儒家者流) 도가자류(道家者流)의 다음에 음양가자류(陰陽家者流)가 위치하리만큼 되었던 음양과 음양합덕의 위덕(威德)을 알 수 있다.

이 음양가자류에는 첫째가 의술(醫術)이고 그밖에 역술(易術), 주명술(推命術), 상술(相術)등 그것도 아홉가지의 음양 5행을 바탕으로 한 학(學)과 술(術)이었다.

아무튼 이렇게 의학, 의술의 위치는 높았지만 그 연원을 음양에 두어서 음양가로 간주했었다는 것을 알고 음양합덕을 상고하기로 한다.

음허화동(陰虛火動)이란 병이 있다. 음기가 허하고 모자라 양기가 과잉해서 오는 병이다. 몸에 음기인 수기(水氣)가 과다하고 화기인 양기가 모자라면 부증(浮症)이 생기게 된다. 음양합덕의 원리를 알면 모두가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음양합덕이 바로 정음정양이니 신앙생활에 철저히 하면 바로 글자 그대로의 안신(安身)이 될 것이다. 이 안신 곧 몸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행동하는 준비과정이니 종교심 또한 안신(安身)의 기반을 지니지 않고는 안되는 것이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그 몸을 평안케 한 후에 움직이며 그 마음을 쉽게 [平易] 한 후에 말하며 ... (子曰 君子學其身而後動 易其心而後語 ...)<sup>52)</sup>

안신을 이용(利用 = 좋게 쓰는 것)해서 덕을 높인다(利用安身 以崇德也)<sup>53)</sup>

대순진리회는 4강령(四綱領)가운데 안심(安心 = 마음 편한 것)과 함께 안신(安身)이 있는 것이 독특한 바 주역계사의 말씀을 임용(仍用)한 심신안정에 철저함이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51) 九流學派 : 儒家, 道家, 陰陽家, 法家, 名家, 墨家, 縱橫家, 雜家, 農家 者流 (漢書 藝文志)

52) 주역 계사하전 제5장

53) 주역 계사하전 제5장

아무튼 정음정양의 음양합덕을 체인(體認)하여 몸가꾸기에 힘 쓸 것이니 너무 비만해도 안되며 너무 수척해도 못쓰고 음양합덕 주화조절이 안신을 위한 수양이 되는 것을 역과 함께 강령이 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음양합덕의 교의는 인간의 육체 그 생리에서만 작용은 아니고 심리적인 정신과 심성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주목할 여지가 있다.

오늘날 현대인의 가정에 주역이 가르치는 바가 있다. 그것은 남성은 양이며 또 건(乾)이고 곧센(剛)것의 표상인데 반해서 여성은 음이며 곧(坤)이며 부드러운(柔)존재로 표현한 것을 누누히 보아왔다.

그것이 과거 조선조 5백년에 너무 형식과 의례에만 묶이었던 유교의풍으로 음양합덕이 어그러져서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처럼 또 비자(婢子)처럼 다루어져서 정음정양(正陰正陽)이 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정당한 순서로 정위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외국서 건너온 남녀동권이니 페미니즘(feminism)이니해서 도(道)에 입각한 합덕의 운동이 아닌 여성우위의 또 기형적인 현상을 이루고 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가정이란 가장 초보단위인 동시에 또 음양합덕의 핵심적 단위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이웃이 생기기도 나아가서 동(洞)과 리(里) 그리고 면(面) 읍(邑) 군(郡)이 형성되고 시(市) 도(道) 또는 광역시(廣域市) 특별시(特別市)를 이루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란 대단위의 국가사회가 이룩된 것이다.

여기서 먼저 가정과 또 이웃사이에 필수적인 음양합덕이 형성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데 착안하지 않고는 안되는 것이니 아버지는 남성이니까 양이며 어머니는 음, 남편은 양, 아내는 음, 아들은 양, 딸은 음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양들과 음들이 합덕 조화하여야만 완전한 가정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도 남편과 아내의 상부(相扶) 상자(相資)가 가장 근본되는 가정의 음양합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최초단위인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이웃이 되고 취락(聚落)이 되고

이동(里洞)이 되어 확산된 사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도 바로 음양합덕의 원리로 성립되는 것이다.

주역계사에서 남녀간을 직접 지적해서

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構情 萬物化生 (천지의 기운이 화합해서 만물이 이루어지고 남녀간에 정기를 합해서 만물이 생육한다<sup>54</sup>)

이 글에서 먼저는 하늘과 땅을 말하고 뒤에는 남자와 여자를 말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앞의 천지가 만물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라면 뒤의 남녀는 만물을 화육, 생육한다는 것이니 하늘과 땅의 소임(所任)보다 남녀의 소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에 유의할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전반에 또 개인과의 접촉에 불과 같은 화가 날 때가 있다. 이것을 지식(止息)시키는 것은 물로서도 표현되는 음의 힘이니 바로 음양합덕으로 우리의 심리상태가 조절이 되는 것이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비통과 참담한 경우에 우리는 그 음부(陰府)의 구렁텅이에서 주저 앉을 수 없으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낙관적인 곧 양성적(陽性的) 희망을 가지고 굳건한 발길을 옮길 때 새로운 생활이 전개되는 것이니 이 음양합덕의 오의(奧義)를 체득하는 자만이 올바른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좋은 일, 기쁜 일이 있다고 즐거워 경박하게 날뛰는 것이 아니라, 음의 침착한 기운으로 합덕하는 군자의 덕이 있어야 하는 것 또한 하나이 규범인 것이다.

#### 4) 가정과 이웃간의 규범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고 걱정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장닭이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됐으니 또 정음정양이 파괴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그래서 TV의 드라마같은 것에서도 따귀를 맞는 것, 종아리 차이는 것은 모두 건(乾)이오 하늘이라고 하던 남성이다. 이렇게 남성의 위

54) 주역 계사하전 제5장

치가 바뀌어 땅 속으로 추락 함몰된 지경이 된 것이 오늘이다.

구세대의 나이 먹은 남녀나 나이 적은 신세대의 남녀가 경근하게 도심(道心)에 입각한 정음정양의 음양합덕을 재인식하고 명심하여 이행할 때가 바로 오늘 이시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사이에도 대순사상의 가르친 남잘되게 하는 법과 정신으로 상생(相生)의 도에서 상합(相合)하는 것을 생활신조로 하여 음양합덕을 실생활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몸을 닦고 가정을 거느리고 나라의 정치를 하고 천하를 평안하게 [修身齊家治國平天下] 55)하는 것의 근본이 음양합덕에 있는 것임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오늘의 우리 가정현상을 살펴보면 이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거기에는 중년이상 심지어는 노인층의 이혼까지 상당수가 생겨나는 판국이라고 한다. 지상낙원의 첫단계인 가정의 항다반한 이혼이 음양합덕이 되지않은데서 온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가 총립(叢立)하면서 이웃이 없다. 이웃4촌이란 속담조차를 없애 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시대가 되었다.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고 이웃사랑을 내몸같이 하는 이타(利他)의 음양합덕이 있어야 할 것을 극도의 개인주의가 팽창한 사회가 되어 버렸으니 정음정양·음양합덕 복귀가 있어야 할 것이다.

## 5) 정치, 경제의 원동력

이 원고를 쓰려고 할 때 TV의 아나운서가 소리를 친다. '나라가 위태롭다!'고 ... 그리고 이 프로의 제목은 '나라를 생각합시다'한 것이다.

눈을 감고 생각하니 태극의 양의(兩儀) 음과 양, 국기에 그려져 있는 붉은 덩어리와 푸른 덩어리가 서로 안고 돌아야 할 것이 금방 두 개가 갈라져서 둥근 테두리 밖으로 튀어 나가며 펑 - 소리를 내고 허물어지는 것만 같다.

일찍이 음양의 양의(兩儀)가 4상(四象)으로 나뉜 것처럼 조선조 중엽부터 동인(東人)이니 서인(西人)이니 하다가 남·북·노·소(南北老少)로 갈리어서

55) 四書 中 大學에서

국가 민족의 사활보다 자기 자신과 자기 당과의 이익 때문에 눈이 뒤집힌 외감내상(外感內傷), 음허화동(陰虛火動)의 증상은 드디어 수구(守舊)와 개화(開化)의 또 알력으로 덩굴다가 침략자 일제(日帝)에게 반만년역사의 3천리 국토를 송두리째 약탈당한 비사(悲史)를 겪은 것이 우리 민족이오 국가인 것을 돌이켜 보면 다시금 음양합덕이 나라와 겨레, 그리고 그 정치,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오늘의 나라, 정부와 국민, 여당과 야당의 음양부조(陰陽不調)가 혼란한 모든 사태의 근본이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속이고 하다가 끝에 가서 하는 소리가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이다.

떡값이라면 몇억 몇백억을 받아 먹어도 괜찮은 나라가 일찍이 땅위에 있었던가? 부정음양(不正陰陽) 음양불합(陰陽不合)의 정경표본(政經標本)을 세계의 이목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이다.

일찍 이나라의 정치인, 경제인, 교수, 학생들이 주역이 가르치는

亢龍有悔<sup>56)</sup> (올라간 용은 (이니) 뉘우침이 있다)

라는 교훈을 배워 있었어야 할 것을 그렇지 못했다.

올라가면 내려오고 바닥까지 내려가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음양 양의의 큰 뜻을 지금이라도 배워야 한다. 경제에도 그렇다. 제 잘먹고 제자식 재산 물려주려고 하는 기업인이 있어서는 안된다. 남잘되게 하는 법을 배우고 음양합덕의 정음정양으로서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나도 산다는 생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도 그렇다. 내 임금만 올리고 나만 쉬운 일로 돈을 벌자는 생각을 버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 민족을 일으킨다는 역군으로서의 사명감을 지니고 음양합덕을 모토로 근로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

56) 주역 上傳 乾卦 上九

### Ⅲ. 21세기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음양합덕

21세기라고 해봐야 대단한 것은 아니니 그 연원을 찾으면 예수의 탄생 연대<sup>57)</sup>를 기준해서 백년단위로 한세기라고 이르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제 서구에서부터 이 기원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속의 하나로 다만 임용(仍用)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제 2·3년 후가 되면 서기 2천년이 되고 2천 1년부터 21세기가 되는 것만은 현실로 다가오는데 지구상의 모든 개인이나 국가가 새로운 기대와 희망, 그러나 반대적으로 심리적 위구감(危懼感)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세기적 1대변전기에 우리는 무엇을 지표(指標)로 하여 삶을 유지해 갈 것이며 또 무슨 신념과 귀의심(歸依心)으로 인간의 가치관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가를 20세기의 마지막 장(章)에서 거듭거듭 숙고(熟考)하지 않을 수 없다.

#### 1. 지도이념의 대원칙

한세기 전 19세기말도 그랬지만 오늘의 세기말은 더 다기다단(多岐多端)한 난마(亂麻)의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인류의 개개인이나 국가 사회라는 집단이 물질문명의 소산인 과학기기(器機)의 발달 속에 유사(有史) 반만년동안 쌓아 올린 정신문화는 멸실(滅失)되고 황금본위의 현실일면도(一邊倒)의 이상(異狀)을 보이고 있다.

천상천하에 가장 존귀해야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해조(海潮)에 밀리는 해파리와 같고 인간의 편익(便益)을 위해서 제조된 기기의 한 부품보다도 값어치가 떨어져 가는 상태가 되어 있는 현상이다. 아들의 손에 버림을 받는 늙은이의 신세, 심지어는 자식의 칼과 주먹에 맞아 죽는 아버지의 숫자가 연부년(年復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57) 연대(서기) ... 지금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西紀) 곧 서력기원은 기독교의 교조 예수탄생의 기원으로 외국어로는 'After Domino(A.D = 主後)라고 하는데 중세 기독교에서 계산착오로 예수는 서기 전 5년(5B.C = Before Christ)에 출생한 것이 되어 있다

이나라 곧 우리의 조국을 돌이켜 본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Korea  
 그 등불 다시 한번 빛나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시성(詩聖)이라고 까지 불리우는 인도의 시인이며 사상가였던 타고르<sup>58)</sup>가  
 암담했던 일제 침략하의 한국에 보낸 '아시아의 광명(The light of Asia)'<sup>59)</sup>이  
 라는 시의 전문이다. 기탄잘리(Gitanjali)라는 시로 1913년 노벨문학상을 그  
 것도 아시아사람으로서 맨먼저 받은 시인인데 이렇게 한국을 동방의 밝은  
 빛이되리라고 예시(豫示)적 격려를 한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오늘날까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방의 봉화(烽火) 불 같은 빛이 되질 못하고 황금의 누른  
 빛에 단증(疸症)<sup>60)</sup>들린 민족이 되어 가고 있는 것만 같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줄 버리(綱)가 없고 속바퀴(軸)가 빠진채 바탈로 굴러  
 가는 수레바퀴가 되어 애인과 술먹고 놀 돈이 없어서 소매치기, 절도, 강도  
 를 하는 것이 당대 대학생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것이 어디 한국  
 뿐일까마는 그 가운데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민족성때문인지 세계 사람들  
 가운데 빠지지않는 것이 참 딱한 일이다.

한국을 구할 지도이념이 없다. 아니 세계를 구제할 지도이념이 없다. 극  
 과 극으로 내닫는 종교나 사상이나 학문, 예술등으로 2세들을 지도했고 또  
 오늘의 젊은 세대가 배운 것이 그것 뿐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동양의 것이 우수하고 한국의 것이 우수하다고 해서 날뜰이니 배움집이니  
 이름씨니 하는 따위가 무슨 대단한 애국심같이 간주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  
 갔다. 판소리를 하고 가야금을 하고 농악놀이를 하는 것만(만이다)우리것이  
 아니라 정명훈이나 조수미, 장영주처럼 서양음악으로서 외국의 악계를 뒤흔

58) 타고르(Tagore Rrfindranath 1861~1941) ... 인도의 시인, 극작가, 사상가 아시안  
 최초의 노벨문학상 받음 (1913)

59) 아시아의 등불 ... 1929.4.2 동아일보 게재, 일본의 초청으로 동경에 왔을 때 한  
 국에는 오지 못하고 이 시한편을 기고(寄稿)함

60) 흔히 달증이라고 부르는 황단병(黃疸病)

드는 것이 진정한 애국의 길이요, 세계화의 길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서양의복이 이미 생활화해서 우리 풍습에 젖어 있는 때, 그리고 맥주 한 잔, 커피, 주스가 입에 익어 있는데 무슨 땅콩차니 대추차니 인삼차니 해보야 통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미국일변도가 되어 남의 나라지명까지도 방콕을 뱅콕이니 간지스강을 갠지스라고 하고 탈란트를 탤랜트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도 일어섯하는 구령을 쓰는데도 법원재판정에서는 꼭 起立(기립)이라고 불러야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허다한 것도 탈이다. 이 모두가 극과 극으로 흘러서 음양합덕을 모르고 또 실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국가적인 사상(事象)에서 참으로 대순 종지의 첫째인 음양합덕이 오늘처럼 소용되는 때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음양합덕의 정음정양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있는 국가 사회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친 독단은 아닐성하다.

때문에 극단의 국수주의(國粹主義)와 함께 극단의 국제주의를 경계해야 하고 극단의 사회주의와 함께 극단의 자본주의를 경계해야 하며 극단의 서구문화와 함께 극단의 민족문화 추종 모두가 음양의 비합덕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삼가야 할 것이다.

우리를 구할 이념이, 그리고 세계를 구할 지도원칙이 한국에 있으니 그것이 바로 대순사상의 종지 음양합덕이다.

이것은 한 종교의 종지라기보다 우주3계를 생성 유지한 대원칙이며 세계의 개벽으로 인계를 선경(仙境)으로 승화시킬 인류 구원(久遠)의 생명철학이며 인간학이며 국가경영학이며 세계평화의 기본사상이다.

이 태극양양의 음양합덕이 얼마나 고귀한 이념인지 해설에 앞서 하나의 삽화(挿話)를 소개한다.

덴마크 [丁扶]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Bohr, Niels Henrik David)<sup>61)</sup>의 이야기다. 코펜하겐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상보성원리(相補性原理)로서 세계

61) 닐스 보어(1885~1962) 상보성(相補性原理)를 발표한 덴마크의 물리학자, 노벨문학상 수상(1922)

학계에 명성을 떨쳤으며 19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학자다. 이 보어가 1년전인 1921년에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과 세계학계에서 상대성원리(相對性原理)에 대한 상보성원리(相補性原理)의 반론(反論) 논쟁으로 12년간 지속이 되었는데 결과는 아인슈타인이 보어에게 손을 들고 화해한 것이 당시 세계학계의 관심사였다.

2차 세계대전때는 미국으로 건너가서(1940) 미국의 원자폭탄제조에 참가했으며 종전후에는 원자력이 평화이용 국제 관리에 헌신한 사람이다. 아인슈타인의 명성에 가리워서 일반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못했지만 물리학계에서는 세계의 학자들 가운데 추종자가 많아 보어를 중심한 코펜하겐학파가 구성될 정도의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가 2차 대전과 한국동란후에 태극과 4괘가 그려져 있는 한국의 태극기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자기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지만 태극양의 곧 음양이 움직여 서로 안고 도는 것 같은 태극도상(圖像)과 그 발전과정을 보고는 쇼크를 받은 것이다.

말하자면 자기의 일생 연구한 상보성원리(相補性原理)를 수천년전부터 도안화해서 사용한 저것이야 말로 그 원리의 원리라고 느낀 것이다. 바로 음양합덕(陰陽合德)이 상보성원리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자기의 수십년 연구를 한국사람은 저렇게 매일 보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심취해서 자기의 코트 오른쪽 가슴에 태극마크를 그려 붙여 입고 다녔고 자기집 대문 위에도 태극도상을 크게 만들어 붙여서 10여년 간 그렇게 생활하다가 88세에 운명한 사람이다.

이것을 동아일보 특과원이 그의 고택(古宅)을 방문해서 지상에 특집기사<sup>62)</sup>로 소개하였는바 그것을 읽은 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

외국의 학자 그것도 자연과학자가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심취(心醉)한 이론은 과거시대의 썩어 없어진 사상이 아니라, 21세기에 새로운 지도이념이 되어 세계를 화평하게 하고 인류의 위기의식을 불식(拂拭)시켜서 건전한 생활을 영위케 할 수 있는 영원히 살아 있는 진리 [道] 그 자체며 대원칙의 이념이라는 것을 넉넉히 말할 수 있다.

62) 동아일보 1976년 2일간 연재

## 2. 가치관 수립의 초석

기독교 성서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적 교훈이 있다.

반석 위에 제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 ... 비가 오고 큰물이 밀려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집어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반석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이다. ... 모래위에 제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 비가 오고 큰물이 밀려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집어치면 그 넘어지는 것이 매우 심할 것이다.<sup>63)</sup>

오늘의 한국, 그 한국인들이 나라가 넘어간다고 비명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훈의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철학의 빈곤 그 가운데도 가치철학(價值哲學) 없는 정치, 경제로 치달은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정치요 거품으로 이론 경제가 되기도 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무궁화꽃이다. 무궁화꽃을 많이 피우자'하는 사실판단적인 면에만 정신이 빠져서 신한국을 건설한다고 하고 '무궁화꽃이 무궁하게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꽃을 더 아름답게 피우자'하는 가치판단을 잊어버렸으니 건축의 토대가 본질적으로 모래바닥인 것을 몰랐던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발달한 신칸트학파의 실체개념 아닌 관계개념, 그 관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닌 타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한 말재주 같은 이론이나 라스크(E. Lask)<sup>64)</sup>처럼 객관주의적 견지에서 가치론을 전개한다든지 한 이론이나 미국서 형성된 실용주의적 가치학과(존·듀이<sup>65)</sup>)를 위시한 1군의 철학자들이 형성되었지만 이런 것을 일일이 따질 것은 없으니 원칙의 원칙인 음양합덕을 알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요구하고 희망하는 것은 모든 사물, 개인의 경우나 국가사회에서나 현실적 사실의 발전과 함께 가치판단의 기준(規準), 규범(規範)이 없

63) 신약성서 마태복음 7:24~26

64) 에밀 라스크(Emil Lask)(1875~1915 A.D) 독일의 철학자, 가치철학위의 논리학의 신체계같은 독자적 학설을 세웠다

65) 존 듀이(Dewey John, 1859~1952) 미국이 철학자, 자본주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실용주의(Pragmatism)를 응용철학으로 발전시켰다

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 안의 문제가 된 대사건들 12.12의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한보를 중심한 그 소위 떡값 같은, 나라를 뒤집고 정권을 좌우하는 일들이 가치판단의 기준없이 정권, 금권, 이권등의 현실적 이해에만 빠졌던 것을 거울로 삼아 참회 속에 새로운 반성의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을 정·관·재·군·법(政·官·財·軍·法) 모든 계통 사람에게 당부하지 않고는 안될 것이다. 또 전 국민이 함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나가는 새로운 각오가 없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국가나 사회 또 윤리 도덕면의 가치판단을 캐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인간을 위주한 가치관을 추구하여 21세기 세계인류의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이다. 그러기에 인간에게 대한 옛 사람들의 가르침을 찾아 온고지신(溫故知新)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乾道成男 坤道成女 乾知大始 坤依成物 (건도(乾道)는 남자가 되고 곤도(坤道)는 여자가 된 것은 큰 시작을 맡고 곤은 만물이 이루어짐을 지어 낸다)<sup>66)</sup>

天地之間 萬物之中 唯人最貴(천지사이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sup>67)</sup>

天上天下 惟我獨尊(하늘 위 하늘아래 내(ATMAN)<sup>68)</sup>가 제일 높다.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sup>69)</sup>

사람이 곧 한울이니 [人乃天]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라 [事人如天] <sup>70)</sup>

위의 구절들은 각종교의 교전 또는 교서에서 뽑은 것이지만 동양의 사상은 인간은 신의 피조물(被造物)이라든지 또는 신이 우주를 창조(創造)했다든지 하는 우화 동화같은 신화(神話)에 입각하지 않는다.

66) 주역 계사상전 제1장

67) 동몽선습(童蒙先習) 제1절

68) 아트만(ATMAN) 인간의 육체가 아님, 인간과 모든 사물의 주체성

69) 진경 교법 제2장 56절

70) 천도교경전 해원신사법설 待人接物편

우주는 음양 5행(또는 8괘)의 조화(造化 = 進化라는 말로 대체(代替)해도 무방한)에 의해 조성(造成)된 것이며 인간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이 곧 하나의 우주며 음양 5행 그 자체라고 보는 것에 특색이 있다.

그래서 유교적으로는 건(乾)인 천(天)이 바로 남성이요, 곤(坤) 곧 지(地)가 바로 여성이어서 우주 만물을 조성하는 원리를 역(易)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천지간에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도교에서는 유교보다도 더 극명하게 천지 우주의 도(道)를 구성해 있다. 혼성(混成)된 기(氣)가 음과 양의 2기(二氣)로 나누인 다음 또 생겨난 충화(沖和)의 기(氣)에 의해 결합되어 만물이 생겨나니 양기(陽氣)의 정(精)은 하늘을 이루고 음기의 정은 땅이 되어 천지의 두 기운이 합하고 거기서 인간이 생겨난다는 것인데 원리에는 다른 것이 없다.

다만 하늘이 도를 낳고(道生之) 땅이 덕(德)을 기른다(德畜之)고 해서 도와 덕을 결부한 것에 대하여 주역에서는 음과 양을 도라고 한다(一陰一陽 謂之道)고 하는 것에 특색이 있다. 아무튼 남녀 인간이 천지건곤 그대로라는데서 인간가치의 절대성을 교시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니 乾 = 天 = 人(男) = 道, 坤 = 地 = 人(女) = 德이라는 법칙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불교의 경우도 우주구성의 원칙을 지수화풍(地水火風)의 네가지 원소 [四大] 를 말하는 것은 중국의 5행(五行)과 비슷한데 모든 살아 있는 것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다(一切衆生 皆有佛性)고 한 동시에 천상천하에 인간(ATMAN이란 我是 梵 = BRANMAN과 한몸이 된다는 梵我一體사상을 지니고 있다.)이 제일 높다고 가르치고 있어서 인간의 절대적 가치를 고조한다. 그리고 만물은 인연생기(因緣生起)의 법칙, 곧 인과법 [原因結果의 法] 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조화(造化) 진화(進化)를 말하는 것도 곧 음양합덕과 같은 원리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한 대순진리회의 도조 증산은 하늘보다 땅보다 인간이 존귀한 시대가 도래한 것을 가르쳐서 역시 인간의 가치평가를 하고 있으니 실로 위대한 선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대순사상에서 인존 가운데도 인존의 주인공들인 증산·정산의 두분을 받들어 구천·옥황의 양위상제라는 교의를 설정한 것이 인존사상의 기초위에 넉넉히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동학의 경우도 수운은 처음 시천주(侍天主)사상을 표방했지만 2대 교주 해월에게 와서 사람이 곧 한울(하늘)이라는 사상으로 발전했다가 3대 의암 때 와서 그 인내천(人乃天)사상이 정착이 된 것인 바 이렇게 인간의 가치평가가 우주와 같고, 우주보다 더 높은 위치에 우뚝하게 서 있다는 것이 위대한 인간적 가치관이다.

이렇게 고귀하고 존대할 뿐만아니라 바로 우주의 주인공인 인간이지만 자연과학의 생물학적인 눈으로 본다면야 한 마리 개미나 새암쥐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자연과학적 지식이 발달되어서인지 오늘날 생명을 경시하는 인간 가치의 평가절하(評價切下)현상은 지구인류의 자모(自侮)적 행동인 동시에 유지질서의 혼란마저 가져 오는 세기말적 현상이다.

인명살해를 무슨 스포츠마냥 자행하고 심지어는 어린 여자중학생까지도 자살을 하는 당대의 인명가치는 실로 애완용 강아지의 백분지일 값어치로도 비길 수 없는 실정이 되어 버렸다.

만물의 영장일 뿐 아니라 우주만물의 주인인 인간이 황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심부름꾼이 되다못해 이제는 기계의 한부품과 같은 위치에서 혼도 뉘도 없는 기계인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오늘의 인간이 21세기에는 제 스스로의 반듯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인간 자체가 음과 양으로 조화(造化)해 있는 우주 그 자체기 때문에 그 음과 양의 도(道)와 덕(德) 바꾸어 말하면 양의 덕과 음의 덕을 합치시키는 사실판단의 현실적인 면과 함께 가치판단의 형이상적인 면으로의 새로운 세계관, 국가관, 인생관의 가치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음양합덕이다.

이야말로 오늘의 한국을 갱생시키고 양단된 조국을 통일시키는 그리고 균형된 세계의 평화와 함께 적게는 우리 개개인의 가치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기초공사라고 단언할 것이다.

다시금 온 국민이 또 세계가 음양합덕의 대도를 함께 신조삼기를 바랄 뿐이다.

### 3. 민족의 개벽공사, 남북통일

주역에는 개벽이란 말을 합(闔)과 벽(闢)이라고 해서 열고(闢) 닫는(闔) 것으로 표현했다.

闔戶謂之坤 闢戶謂之乾 一闔一闢 謂之變 (문 닫는 것을 곧이라 하고 문 여는 것을 건이라 하고 한번 닫고 한번 여는 것을 변이라 한다)<sup>71)</sup>

다음 계속하는 말에서 '이런 까닭으로 역(易)에 태극이 있어 태극이 양의 (兩儀 곧 음양)를 낳는다'고 되어 있다. 이 합벽(闔闢)을 동화의 창시자 수운(水雲)은 말을 바꾸어서 요즈음 유행하는 열린 정치 열린 경제라는 말처럼 개벽(開 = 열 개, 闢 = 열 벽)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도 따져보면 하늘에서 내린 계시로서 되었으니 천도교경전 용담가에

개벽후 5만년에 네가 또한 침이로다.<sup>72)</sup>

하여 있고 안심가에도

개벽시 국초일(國初日)에 만지장서 내리시고<sup>73)</sup>

하여 있다. 그후 2대 교주 해월에게 이르러서는

개벽이란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 인생만사의 개벽을 정신으로서 하느니...<sup>74)</sup>

하여 정신개벽, 사회개벽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개벽사상이 증산에게 와서는 공사(公事)하는 공청(公廳)의 사무처리와 연결된 개벽공사, 천지공사등으로 발전해 갔다.

71) 주역 계사상전 제11장

72) 천도교 경전 용담유사 용담가

73) 천도교 경전 용담유사 안심가

74) 천도교 경전 해월선사법설 개벽운수

아무튼 오늘 우리가 당면한 개벽공사 가운데 정신개벽을 앞 절에서 말한 가치관 확립으로 한다고 하면 민족적인 개벽공사는 반세기의 숙제가 되어 있는 국토의 남북통일일 것이다.

8.15 광복이후의 사정이라든지 6.25의 남북전쟁이나 그후의 남북간 사정들을 이일이 거론할 수는 없고 다만 4자회담(미국, 중국, 남한, 북한)의 개최를 앞두고 설왕설래하는 그 가운데도 식량부족을 호소하는 북한측을 앞두고 어떻게 남북통일을 이룩할 것인가 하는데 우리의 의견을 보태지 않고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민족의 후천 개벽공사인 남북통일을 논함에 있어 우리는 해월(海月)이 말한대로 정신개벽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며 나아가서는 우주 그 자체라는 천존(天尊)보다 더 큰 인존(人尊)시대의 주인공이라는 지위를, 인식은 고사하고 그 권리를 아주 포기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어떤 종교의 경우는 하늘 위에 하늘 아버지 [天父] 라는 가상물을 설정해 놓고 그 아버지가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운명까지를 자유자재로 한다는 생각을 믿고 있는데 우리 실토(失土) 북녘에서는 과거에 수령아버지가 고기를 주고 밥을 준다고까지하여 믿다가 요즈음은 젊은 지도자아버지가 주는 것이라고 믿는 사상과 주의이 종교신봉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자연과학을 양(陽)으로 표현하면 정신문화인 종교나 주의사상은 음(陰)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데 과학이 최고도로 발달하여 무신론과 함께 무내세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상과는 판이하게 절대신이나 절대인간을 믿는 미혹된 신앙 [迷信] 이 횡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대는 정음정양의 합덕 아닌 편음(徧陰) 편양(徧陽)의 극(極)과 극으로 빛나가고만 있으니 이런 혼미 혼잡한 시대가 역사상 언제 있었던가 묻고 싶은 것이다.

우주를 여행하고 인간을 복제하기까지에 이른 현대과학이나 또 정신문화의 소산인 종교나 사상 그 두가지가 인간에게 다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2원화한 상대성이 극과 극으로 상반하게 진행되는 것은 인류의 영구한 비애가 아닐 수 없으니 닐스 보어의 상보성(相補性)원리라기

보다도 태극양의 음양의 합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에게 있어서도 비극이요 세계적으로도 비극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하나의 예로 국토가 양단되고 사상이 분열된 우리 민족의 비통한 역사가 언제 끝날지, 이것을 오직 걱정하는 것은 당사자인 우리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또 남녘 사람들은 어떠한가? 이것도 살펴보면 (더욱이 음양합덕의 견지에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여 갖가지다.

아예 남북통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심지어는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통일이 되면 좋고 안되어도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통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아상태에 해매는 북녘을 위한 경제적인 부담이 반감지않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통일을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지지 희망하는 사람은 더 많이 있다. 그래도 그 생각들이 모두 달라서 북녘을 흡수 병합하는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 남과 북이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권리로 해야 한다는 사람, 인구비례로 입법부를 구성하고 행정, 사법부도 그래야 한다는 사람, 그것보다는 남북 통틀어서의 총선거와 대통령선거, 또 지방선거를 해야 한다는 사람, 그런 것은 평화리에 허심탄회한 상태가 아니면 안되는 것이니 각자의 정부를 가지고 연방형태의 공화국으로 해야 한다는 사람 모두가 각인각색으로 다기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 북녘 사상과 정치에 심취한 사람들은 남쪽에 적색혁명이 성공되어 북녘의 인민공화국으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극단적 사회주의 색채의 사람이 드러나지는 않아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 남북의 통일이 일반사회의 통례대로라면 ‘맨 사람이 풀어야 [結者解之] 하는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국토를 북위 38도선으로 갈라 놓은 미국과 소련 두나라 가운데 소련이란 것은 변신해서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정체(政體)는 국가연방에서 여러개의 독립 공화국이 되어 버렸고 (그냥 존속되었다고 해도 한국통일에 대한 성의는 없을 것이었다.) 또 미국은 남쪽의 후견국가처럼 버티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 남은 방법은 남북이 민족성, 주체성으로 민족 스스로가 화평

리에 웃으며 손잡고 통일하는 음양합덕의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 어떻게 된다는 그 소위 신문기사적 6하원칙(六何原則)의 해답의 방법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이것은 새로운 후천개벽공사인 것만은 틀림없으니 이야말로 새로운 민족의 광복이며 새로운 조국의 건국인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면서 음양합덕을 원리 원칙으로 한 민족적 후천개벽의 남북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보는 것이 무익한 일이 아닐 것 같다. 이것은 남북만주와 중원(中原)<sup>75)</sup> 3만여리를 지배해 오던 옛 우리 조상 동이족(東夷族)<sup>76)</sup>의 후손다운 대웅도(大雄圖)를 21세기 새날에 온 세계에 펼쳐보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이 민족정신이다. 서구나 또 아메리카 사람들은 그다지 큰 민족의식이 없어도 독립국가로서 지탱해 나가고 또 합중국 [Unitede staits]의 형태로 잘들 살고 있지만 우리민족의 경우 민족관념이 없는 국가형태로는 유지가 어려운 것이 한가지 두가지가 아니다.

일찍이 공산주의를 해도 한국적 공산주의를 하자던 지도자<sup>77)</sup>가 있었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대로의 독특한 한국민주주의를 수립하자고 한 지도자<sup>78)</sup>도 있었다.

한국적 공산주의란 국제공산주의의 반대되는 말이고 한국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가정에서의 가부장적 권위와 국가에서는 군왕의 전제정치적인 방법을 가미한 민주주의란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데 선뜻 찬반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취의(趣意)는 이해할 것 같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그 생긴 모양이 다르듯 제각각 천인천상(千人千想) 만인만행(萬人萬行)인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역사성 전통성을 감안 할 때 민족의 확고한 주체성위에 종교단체도 성립되어야 하며 또 주의 사상의 활동도 그렇지 않고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75) 중국 천지

76) 상고시대 조선족을 동이(東夷)라고 하였는데 큰활(大弓)을 잘 쏜다는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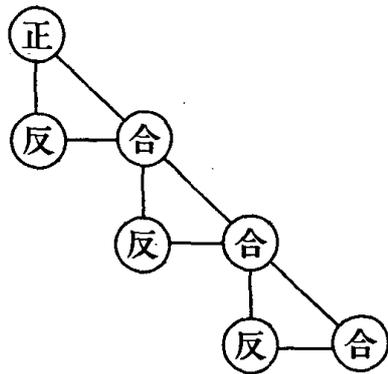
77)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말

78) 제3공화국 대통령 박정희의 말

때문에 통일후의 일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이르지만 확고한 민족관 국가관이 정립된 위에 일본서 발생한 종교나 문화도 받아야 할 만한 것은 받아들일 것이고 또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 심지어는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것도 필요한 만큼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 반국가민족적인 일은 아닐성하다.

그런 의미에서 양의 생성(生成)과 음 화육(化育)의 2기(氣)가 합덕하는 그 합덕의 원리 원칙없는 극과 극의 논리나 방법은 완전히 근절되어야만 할 것이라 한다.

여기에 독일의 철학자 헤겔<sup>79)</sup>의 변증법(辨證法)의 원리를 남북문제와 결부해서 생각해 본다. 이 변증법은 그의 철학의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그리스어 [Greek] 정신과 기독교정신을 융합한 관념론적 형이상학을 창출했다. 변증법을 도해하면



<正명제 = theses>  
 <反명제 = anti theses>  
 <합명제 = sin theses>

이상과 같은 정(正)·반(反)·합(合)으로 발전하는데 합명제가 새로운 명제가 되어 다시 정·반·합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이것이 후에 칼·마르크스<sup>80)</sup>에 의해서 유물론적 변증법<sup>81)</sup>이 생겨나서 공산주의 이론을 도출(導出)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남북의 어느 한쪽을 정명제로 보든 반명제로 보든 이 원리 자체는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정(正)·반(反)의 두가지 명제에서 새로운 합명제

79) 헤겔(Hegel Georg Willem Friedrich (1770~1831) 독일 철학자 베를린 대학 총장 겸 교수, 저서-대논리학 변증법 법철학등

80) 마르크스 (Marx Karl, 1818~1883) 독일의 정치·경제·철학자 과학적 사회주의 창시자, 공산당 선언 기초, 저서 - 자본론, 경제학설비판등

81) 유물론적 변증법 : 헤겔좌파(左派)에서 출발하여 유물사관(唯物史觀)적 입지에서의 변증법

를 도출해 내는 양식이 음양합덕의 진행양식과 공통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정·반·합의 공식이 공자의 중용(中庸)<sup>82)</sup>에도 또 석가의 중도(中道)<sup>83)</sup>에도 통하는 바가 있지만은 그것이 모두 음양합덕이란 역사상, 그리고 대순의 종지와 이명동곡(異名同曲)이라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공산주의의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도 믿는 북녘사람들이 음양합덕의 큰사상을 이해할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으니 그것이 곧 남북통일의 날인 것이다.

끝으로 속어(俗語) 한마디를 들어서 통일을 생략해본다. 남남북녀(南男北女)라는 말로서 이말이 조선조 말기에 생긴 듯한데 말하자면 남쪽 남자가 얼굴이 아름답고 북쪽 여자가 또한 체격과 용모가 아름답다는 말로 전한다.

그런데 이것을 음양오행으로 생각하면 남쪽은 오방(午方)이고 북쪽은 자방(子方)이라서 방위에 따라 양기(陽氣)는 남방에 있고 음기(陰氣)는 북방에 있다는 그런 뜻으로도 풀이가 된다.

더군다나 증산은 후천에서는 상극(相剋)은 없어지고 오직 상생(相生)만이 시대가 도래한다<sup>84)</sup>고도 교시한 바가 있고 또 세계가 사는 계책이 남조선에 있다(만국할계남조선)고도 하였는데 이것을 음양합덕의 관점에서 볼 때 남녘의 양기운과 북녘의 음기운이 합덕한 세상이야 말로 통일국가로서의 융창(隆昌)이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아무튼 대순사상의 음양합덕사상이 민족의 숙원인 통일대업의 원칙이 된다는 것만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 3. 후천개벽의 세계평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의 평안과 사회의 안정, 그리고 나아가서 전세계이 평화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찍이 인류의 교사였던 모든 성현도 그들의 가르침이 모두 다 개인의 인

82) 4서의 하나

過不及이 없는 것을 中, 변하지 않는 것을 庸이라 함

83) 양변(兩邊)을 피한 가운데 길, 고행도 거부하고 향락도 거부하는 [非苦非樂] 수행태도, 따라서 모든 사고와 행동의 규범이 된다.

84) 전경 예시 6절

격완성과 지구상의 평화성취를 이상으로 하여 사람들을 이끌어 깨우친 것이 틀림없다.

동양의 성인 공부자(孔夫子)는

平天下在其國者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다)<sup>85)</sup>

고 했는데 몸을 닦고 집을 거느리고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 는 것을 가르쳐 몸을 수양하는 것으로 비롯한 덕목이 결론이 평천하(平天下)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

석가모니는 많은 군왕에게 법을 가르치면서 화합, 화평을 가르쳐 화합하게 사는 세상을 붓다의 나라 [佛國土]<sup>86)</sup>로 만들 것을 고조하였다. 그리고 그 첫째 방법으로 왕이 진리 [法] 로 생활하면 천하가 태평<sup>87)</sup>하다고 가르쳤다.

기독교의 교조 예수는 그가 탄생할 때 천군(天軍)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 있으시기를, 땅 위에는 마음마음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sup>88)</sup>

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기독교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보다 같은데 바로 지상의 평화가 큰 버리(綱)의 하나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세보다 내세를 치중하는 기독교는 기독교 시범한 기도문<sup>89)</sup>에서 보이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sup>90)</sup>

한 것을 볼 수 있다.

---

85) 대학 佛 제10장

86) 화엄경 보현행원품

87)心地觀經 3 보은품

88) 신약성서 루가복음 2:14

89) 신약성서 마태복음 6:9~13

90) 신약성서 마태복음 6:10

그러나 내세의극락이나 천당등의 비중이 우선 당면한 지상의 평화세계, 선경낙원의 건설의 다음으로 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동양의 몇몇 종교의 경우를 들어 본다.

유교의 경우 공자는 내세의 일보다 현세의 일에 치중했으며 석가의 경우도 거의 같은 생각이다.(6도 윤회같은 것은 석가의 직접 교훈이 아닌 인도의 고유사상이며 극락과 지옥도 석가 사후에 완성된 교설이라고 보고 있다)

동학의 경우도 후천개벽의 5만년 무극대도<sup>91)</sup>라고 해서 개인과 국가 민족적인 면이 고조되어 있고 일본 신도(神道)의 경우도 자기네의 국가민족의 번영이 이상적 목적인데 한국의 대종교는 민족적인 동시에 천궁(天宮)<sup>92)</sup>에 상당한 비중(比重)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증산·정산 두분의 교설에 입각한 대순사상에서의 지상세계의 평화와 안락한 생활상이 전경에 눈에 띄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 몇가지 양태(樣態)를 찾아 본다.

나는 3계(三界)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sup>93)</sup>

이것은 증산이 상제의 위격과 권능으로 만인간에게 보내는 실로 중대한 메시지이며 또 그 자신의 이상과 목표였던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외교적인 국제간 또 국내의 형이상적인 의미에서나 또 형이하적인 가시적 현실의 사상(事象)에서 무궁한 선운(仙運)의 신선세계 같은 낙원을 건서한다는 것이니 여기에 개인의평안과 세계의 평화 그런 이상이 온축(蘊蓄)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제 천지도수를 뜯어 고쳐 신도(神道)를 바로잡아 만고의 원(冤)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sup>94)</sup>

91) 용담가사 용담가, 안심가

92) 삼일신고 천궁훈(天宮訓)

93) 전경 공사 1장 2절

94) 전경 공사 1장 3절

이 후천세계가 그냥 때가 되어서 돌아 오는 것이 아니고 천지의 운도를 뜯어고쳐 해원상생의 도로서 세계의 민생을 구하고 후천 선경 세계를 이룩한다고 하는 일반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자유, 평화의 신천지를 만천하에 선언하는 그는 산간에서 명상에 빠져 있는 성인이 아니라, 바로 구천상제로서의 후천개벽의 정책적 이상을 유시(諭示)로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후천세계 그 평화세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니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흥대(泓大)한 구원의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제 혼란하기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 고쳐 새세상을 열고 비겁(否劫)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후천개벽이다.<sup>95)</sup>

이것은 그의 상제자격으로서 인류의 구제선언이다.(동시에 신명까지도 포함한) 그러나 여기서는 그의 상제로서의 위상(位相)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후천세계의 평화 안정을 논하는 것이다.

비겁(否劫 = 악한 운도)에 빠진 인간과 신명(후천은 인존(人尊)시대니만큼 인간을 신의 상위(上位)자로 간주한다)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安定)을 누리게 하는 것이 후천개벽이라는 정의(定義)를 내린 것이 실로 상제다운 또 상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쾌단(快斷)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 후천의 안정된 낙원같은 세계평화의 양상은 어떠한가를 전경을 통해 규견(窺見)하기로 한다.

후천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威武)와 형벌이 쓰지않고 조화로써 중생을 다스려 화할지니 벼슬아치는 직품을 따라 화권(化權)이 열리므로 분의에 넘치는 폐단이 없고 백성은 원과 한과 상극과 사나움과 탐심과 음탕과 노여움과 모든 번뇌가 그치므로 성음소모(聲音笑貌)에 화기가 무르녹고 동정어묵(動靜語默)이 도덕에 합하며 쇠병사장(衰病死葬)을 면하며 불로불사(不老不死)하며 빈부의 차별이 철폐되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의복이 요구하는대로 나타나며…… 운거(雲車)를 타고 공중을 날아 먼데과 험한데를 다니며 하늘에 오르내림을 뜻대로 하며 지혜가 밝아서 과거 미래 현재十方세계의 모든일을 통달하며 수·화·풍(水火風) 3재(三災)가 없어지고 상서가 무르녹아 청화명려(淸和明麗)한 낙원

95) 전경 공사 1장 2절

으로 화하리라<sup>96)</sup>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항목별로 요약하면

- 천하가 한집안이 되고
- 무단정치에서 조화정치로
- 벼슬아치의 폐단이 없어지고
- 백성들의 모든 억울한 것이 없고
- 성음에 화기, 동정에 화기가 있고
- 육체적으로 불로불사하고
- 빈부의 차별이 없어지고
- 음식과 의복이 자유대로
- 비행기 [雲車] 를 타고 다니며
- 우주세계 여행도 자재하고
- 지혜의 발달로 사물에 통달
- 수화풍 3재가 없어지고
- 상서가 무르녹는 낙원에 산다

고 하는 것들인데 현대에 벌써 성취된 것도 있고 또 개발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평화롭고 자유스러운 지상선경의 낙원세계 그것이 지금 닥쳐 오고 있는 새로운 세계라는 것에 누구든지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튼 지금부터 근 1세기전 시대에 이상에 열거한 일들을 1류 정치학자나 과학자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이렇게 예시 설정한 증산, 그가 신격으로는 상제지만 인격으로서도 종교적 천재며 또 비범한 두뇌의 소유자였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이런 후천개벽의 성취원리가 되는 요체(要諦)를 교시하고 있으니

---

96) 대순전경 천지공사 5장 15절

선천에는 모사는 재인(在人)하고 성사는 재천(在天)이라고 하였으나 이  
 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sup>97)</sup>

고 하여 후천의 도수조절로 된 설계의 청사진을 실현시키는 것은 모든 인  
 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 그의 배포(排布)는 다만 인간 개인의 정신수양이라든지 안심입명  
 (安心立命)의 인간완성 또는 인격완성의 구체책뿐만이 아니라, 천·지·인 3  
 계 전체의 구체, 비뚤어진 세계전체 나아가서 우주전체를 바로잡아 구하는  
 [匡救] 대이상을 지닌 것이니 그것이 곧 대순사상이며 그 교의의 첫째가  
 되는 관건(關鍵)이 음양의 합덕 바로 거기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인간은 가만히 앉아서 후천선경세계가 되면 세계는 저  
 절로 평화와 자유를 구가한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모든 세계인의 성사재인(成事在人)적인 노력정진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신세기의 세계가 평화스럽게 사는 방법은 오직 음  
 양합덕의 원칙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밝혀 모두가 이의 공통분모 위에서 각  
 자 개개인 또는 국가마다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경우 우리는 극단적인 숙명론(宿命論)이나 극단적인 우연론  
 (偶然論) 또는 기독교 장로교가 말하는 신의 예지예정론(豫知豫定論)<sup>98)</sup>이나  
 감리교가 내세우는 예지미정론(豫知未定論)<sup>99)</sup>의 어느것 하나의 눈으로 보아  
 서는 되지 않는다.

불교의 무신론적인 인연, 연기법(緣起法)적 사고나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상에 입각한 신인합일(神人合一)적 사상이나 또 자연과학이 교시하는 자  
 연법칙에 의한 진화 발전 또는 사회과학적인 역사의 발전으로(그 가운데도  
 유물론적 변증법같은) 보는 눈 그밖에도 정치가의 눈, 경제인의 눈, 예술가  
 의 눈등 이습우화에 나오는 방패의 어느 일면만을 보는 눈으로서의 백인백  
 상(百人百想)을 대순사상의 음양합덕의 여부(與否)로서 계산하면 이 사상이

97) 전경 교법 3장 35절

98) 기독교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빈이 주창한 신학학설

99) 기독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주창한 신학학설

야말로 바로 본론(本論)이며 결론(結論)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음양합덕사상은 모든 사유(思惟)와 행위의 시원(始原)이 되는 것이니 그도 그럴 것이 우주 3계의 생성발전이 이 음양의 합덕으로 이루어진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음양합덕의 원리로서 이룩될 신세기의 평화 이상세계의 설계, 그것도 가장 기초가 되는 몇가지 이론을 시도해 보려 한다.

하기야 지구세계의 국가간의 화해 곧 국제간의 평화가 쉽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닌 것은 안다. 각국 인민의 이해가 다르고 그에 따른 지도자들의 생각도 다르며 시간에 따른 정세의 변환도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정치, 군사, 경제적 여건이나 또 무슨 돌발사고가 있더라도 거기에 축(軸)이 되고 버리(綱)가 되는 대강령(大綱領)은 대순사상이 지표(指標)로 하는 음과 양 태극양의 합덕사상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뒤따르는 해원(解冤)이나 상생(相生)도 따져보면 음양합덕의 관념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다음 다시 논의되겠기로 여기서의 논의는 피하기로 한다.

먼저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음양의 이치, 합덕의 진리를 공부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런 사상이 종교에 앞서 학문에 앞서 또 생활에 앞서 머리 속에 자리잡고 있어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종교와 사상의 음양합덕이 있어야만 세계인이 안정된 정신상태에서 생업에 전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생각을 가질 것이며 국가 민족간에도 상호 이해하는 가운데서 우호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이니 여기에 음양합덕정신이 절대로 요구되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에서 우리 주변에는 고부간(姑婦間) 내외간(內外間)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갈등으로 가정의 파탄까지 이르는 실례가 없지않아 있으며 국가간에는 더욱 심한 것이 이것이다.

세계 2차전 종전후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인도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뉘진 것이 그러한 실태며 팔레스타인에 유태교국가인 이스라엘인과 회교국가인 팔레스타인의 장기에 걸친 전쟁이 또한 그런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남의 말만 할 것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외세에 의해 국토가 분열되었지만 그 외세가 물러간 오늘까지도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상적 갈등이 주인(主因)이 되는 것이지만 그 때문에 민족간의 6.25전쟁을 겪은 쓰라린 경험도 있다.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서 경영하는 회사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입사할 수 없고 또 종교단체에서 세운 학교에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이 입학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도 음양합덕을 모르는 차원 낮은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

오늘날 다원화(多元化)한 사회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대에 남의 인격을 존경하고 남이 믿는 종교를 이해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위할 줄 아는 생각이 없으면 그는 21세기를 살아가지 못할사람들이다.

동(動)적인 서양의 종교와 정(靜)적인 동양의 종교가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갈 때 나라안도 평안하고 세계가 모두 평화로울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 의학도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상보(相補) 상부(相扶)하는 것이 더 효과를 올릴 것이며 음악에서 미술에서 한국의 음(陰)적인 바탕위에 서구의 양(陽)적인 것이 접목하면 완벽한 합덕의 것이 생겨날 것이고 문화도 연극도 미술도 무용도 다 마찬가지로 발전 할 것이다.

주택문화, 의상문화, 음식문화가 모두 마찬가지니 동·서의 음과 양이 합덕하는 곳에 진정한 문화가 향상되고 또 세상은 평화리에 발전할 것이다.

다음 음양합덕의 세계화와 함께 우리 국민에게 먼저 포도(布道) 포덕(布德)을 해야 할 것이 다급한 일인데 오늘날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양상을 보면 옛날 궁중에서 가르치던 제왕학(帝王學)처럼 국민을 지도해 갈만한 지식을 못배운 사람이 많은것 같다.

국가 3부의 요인들부터가 음양합덕의 원리를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제도화한다고 하면 그 나라는 평화로울 것이며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되면 세계평화는 틀림없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방도가 없으니 이것은 대순진리회 한 종교교단만의 과제가 아닌 것이다.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 굶주려 죽어가는 인명들, 가까이는 기아에 허덕

이는 북한이 어린이들에게 음양합덕으로 이루어지는 구호의 손길이 뻗어야 할 것이며 뜨거운 아프리카에 에어컨이 추운 러시아 북쪽지방에 전기와 가스의 난방장치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니 그것이 바로 음양합덕의 조화(調和)요 또 조화(造化)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합덕시키고 나와 남의 다른 부면을 조절시키되 어느 한쪽이 우위(優位)에 있다거나 하는 것은 정음정양(正陰正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생각, 내편만을 위주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열린 [開關] 정신 속에 열리는 세계의 새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며 대순사상의 음양합덕 교의가 만천하에 보급되어 21세기가 음양합덕의 평화세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맺 는 말

이상으로 대순사상 그 종지(宗旨)의 첫째가 되는 태극양의 곧 음양의 연원과 그 합덕에 대한 사상을 나름대로 고구해 보았다.

음양합덕이란 말은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말이지만 증산은 정음정양(正陰正陽)의 표현으로 이를 극명하게 표현하였는 바 합덕이란 용(用)의 체(體)가 음양양의라면 정음정양을 상(相)<sup>100</sup>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규정짓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본고(本稿)는 부제(副題)에서 표방한 바와 같이 음양합덕을 21세기의 새로운 지도이념으로서 세계에 재등장시켜야한다는 주안점(主眼點)아래 엮어 내린 것이므로 음양합덕의 이용(利用)과 공효(功效)에 치중하였다.

그리고 서구사람들에게는 역이 가르치는 것과 같은 형이상적인 음양에 대한 개념이 없이 다만 춥고 더운 것, 밝고 어두운 것, 남성과 여성 심지어는 +, - 같은 기호(전기에서는 음전, 양전으로 하고 있지만 역의 음양사상에는 지지말엽적인 것이다)의 가시적(可視的) 현상적(現象的)인 것으로 자연과

100) 체·상·용(體相用) 易傳序(程子)에 體用源 顯微其間이라고 하여 本體系와 現象系가 同一하다는 뜻으로 말했는데 體의 구조 골격을 相으로 보아서 한 단계를 더 설정 사용하기도 한다

학의 방법이 적용될 뿐이기에 본고에는 인용을 시도하지 않은 것을 말해 둔다.

아무튼 음양합덕이란 수천년전 동양의 역사상에서 나온 관념적 문자만이 아닌 영구히 살아 있는 새로운 우주와 인간의 진리로 우리를 지도하는 이념인 것을 우리는 다시금 인식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말만은 꼭 해두어야겠다.

음양합덕이란 글자 앞에 신의 섭리라느니 창조라느니하는 유치한 문자들이 소멸해 없어지고 인연이니 연기니 하는 문자들도 무색해지듯 음양의 원리 가운데 융합한다. 현대의 자연과학도 음양의총론적인데서 연역적(演繹的)으로 각론을 펴는 하수인(下手人)의 용역(用役)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다.

때문에 대순사상의 종지 음양합덕은 인류의 생성·발전의 과거와 현재를 통한 영원한 구제의 지표로 세계 인류사상사(思想史)에 광망(光芒)을 던지고 있는 미래의 진리라 할 것이다.

### 〈사족(蛇足)〉

순한글로 또 될 수 있는대로 한자숙어를 피하고 순수 우리말로 쓰려고 해도 필자같은 망구(望九)의 나이를 먹은 사람에게는 국한문 혼용보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일반이 논문작성에 많이 쓰는 딱딱한 건조체(乾燥體)문체를 버리고 비유적 수사법(修辭法)을 많이 쓰고 약간의 유모어를 섞은 설화 같은 형식의 에세이가 되도록 노력해보았다.

이 논문집 제1집을 낼 때부터 재단의 정(鄭大珍)이사장의 학생과 일반도 인들도 읽을 수 있게 쉽게 써달라는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난삽(難澁)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 것 같다.

다만 음양합덕이 우주 모든 사물을 옹기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란 것만 이 해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할 따름이다.

【참 고 문 헌】

- 典經 大巡眞理會  
周易 儒家四書三經  
康熙字典 日本 博文館  
世界百科大事典 동아출판사  
周易講義 경북대학교출판부  
眞言宗聖典 불교진언종  
密敎 석지현 玄岩社  
密敎問答 日本 진언종 豊山派  
朱子大全 회동서관  
漢文學概論 日本 大同館  
卜筮正宗 중국 上海印靑館  
河洛理數 중국 上海印靑館  
淵海子平 중국 上海印靑館  
古文眞寶 日本 大同館  
支那哲學史綱 石川誠著  
道德經 日本 有朋堂  
漢文叢書 日本 有朋堂  
武陵雜記 周氏世稿  
東醫壽世補元 회동서관  
黃帝內徑 중국 上海印靑館  
素問靈樞經 중국 上海印靑館  
新約聖書 대한성서공회  
三一神誥 대종교총본사  
大巡典經 증산교본부  
世界名詩選 을유문화사  
동아일보 축쇄본(1976) 동아일보사  
新佛敎辭典 日本 誠信書房

佛敎聖典 日本 佛敎伝道協會

천도교교리와 사상 천도교총부

世界思想全集 <헤겔 篇> 日本 新潮社

世界思想全集 <마르크스 篇> 日本 新潮社

華嚴經 日本 신수대장경 中에서

신편불교성전 불교성전간행위원회

甌山神學概論 증산사상연구회

道學原論 태극도편찬원